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513

2008年 8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에 收錄된 俗談 · 格言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鄭 乙 錫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에 收錄된 俗談 · 格言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verbs in the High School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extbook

2008 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 文 教 育 專 攻

鄭 乙 錫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에 收錄된 俗談 · 格言에 관한 硏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 年 8 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鄭　乙　錫

鄭乙錫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2008年 8 月

朝鮮大學校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 1

2. 硏究의 方法 및 內容 ····· 4

Ⅱ. 俗談· 格言의 構成과 學習方法 ····· 6

1. 俗談 · 格言의 構成 ····· 6

2. 俗談 · 格言의 學習方法 ····· 12

Ⅲ. 俗談· 格言의 分析 ····· 42

1. 俗談의 分析 ····· 42

2. 格言의 分析 ····· 58

Ⅳ. 俗談 · 格言 敎育의 改善方向 ····· 73

Ⅴ. 結論 ····· 76

<부록> 俗談과 格言의 收錄現況 ····· 78

<참고문헌> ····· 84

Abstract

A Study on the Proverbs in the High School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extbook

By Jeong Eul-seock
Advisor : Kwon Soon-yoel Litt. D.
Major: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thesis effective methods and general contents are studied centering on the high school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he units of the proverbs and maxims in the textbooks are essential i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but there aren't a lot of opportunities to study them because of the limited number of the proverbs listed in the textbooks.

By analyzing th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even if textbooks present proverbs and maxims in a variety of characteristic formats, all their learning aims are similar to one another as a whole.

Some textbooks didn't think highly of the educational values of proverbs and maxims closely related with our daily lives by including only small number of them in order to reduce the students' pains to study those proverbs.

There are a few textbooks which mix up some provers and maxims in translating them into classical Chinese, causing conceptional confusion. Some textbooks give poor explanations, so learners might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proverbs leading to dislike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In learning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proverbs and maxims are important to let students learn the basic points about Chinese classics by practicing simple sentences. Textbooks contained one to three units of proverbs according to authors. The authors of textbooks migh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mportant learning points. But proverbs and maxims should be emphasized as an important learning element following Chinese characters and idiomatic phrases related to ancient history.

The reason is that proverbs and maxims are made by our ancestors based on the wisdom and long experiences of living. So students can easily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our lives.

In choosing proverbs and maxims to be included in the

textbook, subjects of them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rst. The subjects which are obscure and disconnected with reality don't give motivations to learners. They have negative influences on learners in studying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So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the proverbs and maxim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our reality in their contents.

In terms of general aspects, the subject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is optional.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variety of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in order to establish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s an independent subject.

This is the age of the competition of culture. We can preserve our valuable traditional cultures and spread them all over the world through Chinese characters by learning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s most of our traditional

cultures consist of those based on Chinese characters, we can preserve and develop our traditional cultures more successfully, and on the other hand, we should try to introduce our proud cultures to the world by studying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俗談과 格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차지하여 왔고, 생활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속담과 격언은 우리의 삶과 더불어 생성 소멸되면서 교화의 기능과 아울러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훈계하거나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해왔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풍습과 전통을 따라서 존재해 왔으며, 속담과 격언 속에는 대중들의 오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지혜가 반영되어 있고, 先人들의 생활철학이 담겨진 것으로 傳統的 文化와 價値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속담에 대한 정의는 민간에 내려오는 서민들의 삶속에서 나타난 지혜와 철학이 담겨진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격언은 사리에 들어맞는 사상이나 결론들을 표현한 짤막한 교훈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정의로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또는 속된 이야기로, 격언은 오랜 역사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본다면 속담을 정의할 때 격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속담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정착된 것이 많으며, 격언은 事理에 맞아 인생에 대한 도덕적 교훈이나 경계가 될 만한 짧은 말로 聖賢들의 名言, 古書 속에서 인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출전 또한 분명한 것이 많다.

속담과 격언은 둘 다 도덕적,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속담의 표현은 비유적이고 격언은 직설적이다. 또 속담은 공동작이자 사회적 산물인데 비하여 격언은 개인작이다.[1)]

격언은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체득한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일 등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 할 수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격언에는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이 스며 있고, 선인들의 인생관과 처세관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생활에 길잡이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내용이다. 또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와 민중들의 공감을 얻어 널리 퍼진 것으로, 실생활에서 생겨난 소박하고 짧은 말이다. 따라서 속담은 교훈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기억하기 쉽고 호소력이 강하다.[2)]

그러나 엄격하게 속담과 격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속담은 한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문 영역에서의 속담의 특징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흡하며, 국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 속담의 특징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속담은 대중성, 반복성, 지속성이 있다.
2) 속담은 그것이 생성된 사회의 소산물이다. 그래서 속담은 설화나 민요와 같이 대부분 작자를 알 수 없다.
3) 속담은 그것이 생성된 지역의 향토성 및 언어, 풍습,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반영한다.
4) 속담은 언중들의 생활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5) 속담은 비유적 특성이 있어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훨씬 부드럽게 해 준다.

또한 속담의 기능과 역할은 비유와 대중성을 가진 전통적인 진리로서 인생에

---

1) 이지은, 「제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효율적 학습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6, p.5.
2) 교육부, 『7차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 해설서』, 2001, pp.49~50.

대한 가르침과 처세에 대한 방법을 깨우쳐 주며, 敎化의 기능과 諷刺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3]

속담은 서민들 사이에 유포되어 전래되어 온 경계의 글로 諷刺와 익살이 강한 교훈적 의미를 지닌 짧은 말이나, 격언은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고 밝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교훈적인 가르침이자 훈계라고 볼 수 있으며, 보통 金言 혹은 箴言이라고도 한다. 격언은 풍자와 익살 보다는 직설적인 어조로 강한 訓誡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격언은 주로 인간의 도덕률이나 행동규범에 관하여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짧게 표현한 동서양 聖賢의 말씀 중에서 많이 수록되어 있다.[4]

속담과 격언은 그 의미가 보편적이고 간단하여 그 뜻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문장의 구성이 간단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널리 친숙하게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유머와 재치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 올바른 생활과 情緖를 涵養하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으며, 인격수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제7차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속담과 격언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주제별로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2) 短文으로 구성된 속담과 격언을 학습함으로써 漢文 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3) 漢文 讀解의 基礎를 다지고 속담이나 격언을 익혀 문장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속담, 격언에 담겨진 재치, 비유나 풍자, 경계, 敎訓性을 일상생활에

3) 김종택,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 국어생활』, 4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4.
4) 이야기 한자여행, www.hanja.pe.kr.

적용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올바른 價値觀과 바람직한 人性을 涵養할 수 있도록 한다.

2. 硏究의 方法 및 內容

漢文 교과서에 실린 속담과 격언은 우리말 속담이나 격언을 漢譯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체계를 분석해보면 漢文교과서의 속담이나 격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속담과 격언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고 같이 섞어 사용하고 있어서 속담과 격언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10종의 漢文 교과서에 실려 있는 漢譯 속담과 격언을 다음과 같이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1) 俗談 및 格言에 대한 교육과정의 敎育目標를 살펴보고 실제 漢文 敎科書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파악한다.
2) 속담 및 격언에 관한 다양한 學習 方法을 제시하였다.
3) 속담과 격언의 교과서 별 수록 현황 및 속담과 관련된 출전 자료, 원문 등을 제시 한다.
4) 속담과 격언의 내용 및 그 속에 담겨진 속뜻의 교훈적 의미를 파악하고, 原文, 活用, 漢譯 과정에서 생기는 假借 表記 등을 파악하여 한문학습 및 실생활에 적극 활용 하도록 한다.
5) 漢文교육에서의 속담 및 격언 敎育에 대한 改善 方向을 제시 한다. 즉 첫째, 학습방향의 변화, 둘째, 학습방법의 다양화, 셋째, 다양한 수업자료의 개발, 넷째 내용체계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형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7차 敎育課程下의 『高等學校 漢文』10종 및 『古典』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5]

<표 1> 제7차 한문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현황

연번	출판사명	편자명	약호
1	(주)교학사	김경수, 김봉숙, 김성룡, 김평호	교학
2	(주)금성출판사	이영우, 이병혁, 최상익, 허남욱	금성
3	(주)금성출판사[6]	이영우, 최상익, 허남욱	금성
4	대학서림	강경모, 류기영, 백광호, 신표섭 이병주, 이윤찬, 이태희, 허시봉	대학
5	(주)대한교과서	김동규, 안재철, 원용석	대한
6	(주)두산	이명학, 임완혁, 장호성, 현상곤	두산
7	정진출판사	곽치영, 이수철	정진
8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김상홍, 원창희, 이강렬, 최창구	중앙
9	(주)지학사	박갑수, 이상진, 최상근	지학
10	(주)천재교육	신영주, 이희목, 진재교, 최돈욱	천재
11	(주)청색	김동환, 유성준, 유형규	청색

이하 본 연구의 서술에서는 출판사 표기를 위의 약호로 대신한다.

5)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차례는 가, 나, 다 순에 따르고, 저자의 순서도 또한 동일하다.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古典』 교과서이다.

Ⅱ. 俗談 · 格言의 構成과 學習方法

1. 俗談 · 格言의 構成

漢文과 교육내용의 영역 중 俗談 · 格言은 학생들이 故事成語 다음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漢文學習 영역이다. 그러나 속담과 격언이 한문 교과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 3개의 소단원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속담화 된 고사 성어, 숙어, 관용어구, 성어, 격언 등을 속담의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속담을 漢譯한 한문속담 외에 고사성어, 관용어구를 속담과 격언 영역 안에 포함시켜 考察하고자한다.

> 漢文으로 된 속담이나 격언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유지하는 것들은 쉽게 습득되고 漢文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장들은 漢文學習과 함께 인성교육도 함께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인 속담이나 격언을 학습한 연후에 긴 문장을 학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깊이 있게 연구된 것이다.[7]
> 그들에 의하면 친숙한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쉽게 부호화,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저장되거나 인출 될 수 있는 방법을 시사받는다고 한다.[8]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속담과 격언은 漢字語나 故事成語에 비하여 긴 문장이 생기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하고 귀에 익혀진 것

---

7) 조용식,「고등학교 한문교과서 검토」,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37.
8) 최경숙,『발달심리학』, 교문사, 2000, pp. 218~219.

들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체계 구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앞부분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속담이나 격언의 내용이 현대의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나, 그 뜻이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은 지양 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담긴 속담이나 격언으로 바꾸어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문영역에서의 속담은 우리말 속담을 漢譯한 것으로, 현행 한문교과서에 실린 한문속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9)]

1) 한자어나 격언이 그대로 우리말 俗談化가 된 경우이다. 이것은 의미 전달을 하는 어휘가 한자어인데, 단순히 우리말 吐를 단 경우이다.

예) 草綠同色(초록은 동색이다)

至誠感天(지성이면 감천이다)

2) 우리말 속담을 漢譯한 것이다. 우리말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 본래의 뜻에도 어색하고 마땅한 한자가 없어 音이나 뜻을 빌어 假借하여 만든 속담도 있다.

예) 天雖崩 牛出有穴(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於異阿異(아 다르고 어 다르다.)

3) 고사성어를 우리 속담으로 漢譯한 것들도 있다.

예) 兎死狗烹(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螳螂拒轍(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와 같이 한문속담은 격언·고사성어·관용어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내용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격언과 속담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10)]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한문교과서 중에는 속담과 격언

9) 배원철, 「중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속담 수용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9~12.

10) 배원철, 앞의 논문, pp.9~12.

을 구분하지 않고 '명언, 명구', 또는 '선인의 지혜나 슬기' 등으로 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있다. 반면에 같은 어구를 속담으로, 어떤 교과서는 격언으로 구성해 놓은 경우도 있다.

격언은 속담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격언을 독립시켜 한문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설정한 것도 있다. 따라서 속담과 격언의 영역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한 두 마디의 한문속담과 격언을 사용하여 재치와 지혜가 넘치는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그것을 적용하여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한문영역에서의 속담과 격언이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내용, 주제설정, 지향하고 있는 학습목표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속담과 격언 단원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한문』교과서의 속담과 격언의 구성 체계

출판사	대단원	속담 격언 단원명
교학	Ⅲ. 삶의 슬기	三. 不如近隣
		四. 瓜田不納履　五. 附耳之言
금성	Ⅳ. 지혜의 샘물 앞에서	十三.甘呑苦吐　十四.同價紅裳
		十五. 金科玉條　十六. 他山之石
대학	Ⅱ. 先人의 智慧	三. 俗談
		四. 格言
대한	Ⅱ. 고금의 등대	五. 문장의 나침반 六. 언행의등불
		七. 삶의 지표

두산	Ⅱ. 俗談과 格言	四. 俗談(1)　五. 俗談(2)
		六. 格言
중앙	Ⅱ.지혜의 샘	五 .삶의 나침반(格言)
		六. 삶의 지혜(俗談)
정진	Ⅲ. 생활 속의 말	一. 俗談
		二. 格言
지학	Ⅲ. 옛사람들의 재치와 슬기	8. 까마귀 날자 배가..... 9. 하룻강아지
		10. 오이 밭과 오얏나무
천재	Ⅱ. 마음속에 새기는 명문	4. 짧은 말 깊은 뜻(俗談과 格言)
		5. 단문 속의 교훈(短文)
청색	Ⅲ. 俗談	7. 冽上方言 8. 耳談續纂 9. 旬五志
	Ⅳ. 格言	10. 말 11. 修身 12. 함께하는 사회

<표 2>의 내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학'의 교과서는 속담과 격언 부분의 대단원명이 'Ⅲ. 삶의 슬기'로 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제목은 속담의 한부분이나 격언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설정하였다. 속담과 격언의 제목 설정부터 어떤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가지고 설정한 것이 아니며, 속담과 격언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三. 不如近隣'의 단원만 속담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四. 瓜田不納履, 五. 附耳之言'은 격언의 내용이다.

2) '금성'의 교과서는 대단원이 'Ⅳ. 지혜의 샘물 앞에서'로 설정되어 있고, 속담 단원은 '十三. 甘呑苦吐, 十四. 同價紅裳'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언에 관한 단원은 '十五. 金科玉條, 十六. 他山之石으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소단원의 제목 설정이 속담과 격언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속담과 격언의 단원이 2단원씩 설정 되어있어 타 출판사 한문교과서 보다 속담과 격언의 비중이 내용상으로 보아 높다.

3) '대학'의 교과서는 'Ⅱ. 선인의 지혜'라고 설정해 놓고 소단원에서는 '三. 속담, 四. 격언'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만 보면 명확하게

단원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문 학습단원 분량이 두 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단원 설정에 있어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4) '대한'의 교과서는 대단원이 'Ⅱ.고금의 등대'로 설정 해 놓고 소단원인 속담과 격언의 단원을 '五. 문장의 나침반, 六. 언행의 등불, 七. 삶의 지표.'로 제목을 설정해 놓아 어느 단원이 속담 단원이고 어느 단원이 격언 단원인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六. 언행의 등불'에서는 처음으로 漢譯 속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말 속담과의 비교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속담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두산'의 교과서는 대단원의 제목 설정을 속담과 격언으로 해놓아 쉽게 단원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단원도 속담과 격언으로 나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구성 되었다.

6) '중앙'의 교과서는 대단원을 'Ⅱ.지혜의 샘'으로 설정하고, 소단원은 '三 .成語의 理解, 四. 故事成語, 五.삶의 나침반(格言), 六. 삶의 지혜(俗談)'로 구성하였다. 대단원 구성안에 성어와 고사성어, 속담, 격언을 하나의 대단원으로 묶어놓아,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어와 고사성어의 내용도 속담과 격언의 내용에 포함 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 속담과 격언을 대단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격언 단원과 속담 단원을 순차적으로 설정 하였는데, 이런 단원 설정은 학습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단원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쉬운 속담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격언이 뒤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7) '정진'의 교과서는 'Ⅲ. 생활 속의 말'이라는 대단원을 설정하고 세 개의 소단원으로 '一. 俗談', '二 . 格言'이라는 단원과 '三. 고사성어'로 구성하였다. 이는 속담과 격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사성어와 통용되는 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지학'의 교과서는 대단원을 'Ⅲ. 옛 사람들의 재치와 슬기'로 설정해

놓아 속담이나 격언의 풍자성과 선인의 지혜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설정해 놓았다. 소단원은 '8. 까마귀 날자 배가……, 9. 하룻강아지, 10. 오이 밭과 오얏나무'로 설정해 놓았다. 이중 8·9 단원은 제목만 보고도 속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0 단원은 속담인지, 격언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격언 단원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러한 애매성은 좀더 보완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9) '천재'의 교과서는 속담과 격언의 단원 구성에 있어서, 'Ⅱ. 마음에 새기는 명문'으로 대단원을 설정해 놓고 소단원에서 먼저 '4. 짧은 말 깊은 뜻'으로 우리말 제목을 설정하고 한문제목으로 속담과 격언으로 명시하여 속담과 격언을 분류하지 않고, 한 단원으로 묶어 설정해 놓았다. 또한 '5. 단문 속의 교훈'으로 우리말 제목을 설정하고 한문제목으로 '短文'이라는 단원명을 붙여 5단원의 내용을 격언으로서 설정하였다. 그러나 '단문'에 대한 개념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단원명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단원 3.에서는 '성어의 이해(一字千金)'로 제목을 설정해 놓고, 고사성어와 한자성어 속담을 섞어서 구성하였다. 한자성어, 속담, 격언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단원을 설정할 때는 명확한 구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0) '청색'의 교과서는 속담과 격언의 단원을 대단원으로 설정하고 각각 세 개 단원씩 속담과 격언을 설정하고 있다. 속담과 격언의 비중이 다른 교과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속담의 소단원 제목은 출전 자료를 가지고 설정하였다. 이는 학습자 관점에서 보면 속담의 출전 자료를 알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학습자는 먼저 출전 자료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속담에 대한 학습 내용은 뒤로 미루어질 문제가 있다. 또한 영문속담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문의 난이도가 너무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격언 부분에서는 '10. 말, 11. 修身, 12. 함께하는 사회' 등 격언의 주제로 단원명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 출판된 10종의 한문 교과서속의 속담 및 격언 단원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소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원 제목만을 가지고는 단원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습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구체적으로 속담과 격언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2. 俗談 · 格言의 學習方法

(1) 한문과 교육과정의 학습목표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속에서 한문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한문교과 교육목표 중 전문의 내용에 표현된 속담과 격언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한자, 한자어, 한문을 익혀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며, 한문을 독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라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한문의 하위 목표에서 속담과 격언에 관련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특히 '라항'은 교과서에 속담과 격언의 학습목표로 단원마다 제시되어 있다.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나. 한자어를 바르게 읽고 쓰며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다. 한문을 독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11]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의거하여 속담과 격언에 대하여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교육부고시 1997-1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2001. pp.16.

각 한문 교과서가 제시하는 교육목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학: 속담과 격언을 통해,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파악해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자.[12)]

2) 금성: 속담과 격언의 정확한 뜻을 익히면서, 조상들이 발견한 생활 속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자.[13)]

3) 대학: 속담을 통해 선조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확인해 보자. 격언을 통해 선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과 예지를 배울 수 있다.[14)]

4) 대한: 격언, 속담, 명언, 명구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알아보고, 문장의 기본구조와 확장 구조를 배우고, 선인들의 지혜롭고 격조 높은 삶을 살펴보자.[15)]

5) 두산: 한문으로 표현된 속담과 격언을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슬기를 배우고, 비교적 쉬운 한문 문장도 함께 익히도록 한다.[16)]

6) 정진: 속담과 격언은 언어 대중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공감을 통해서 속담을 공유하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속담과 격언의 학습의 과정은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른 언어 대중의 사고를 공감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7)]

7) 중앙: 속담, 격언에 담겨 있는 비유적인 표현과 함축적인 뜻을 익히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본받아 우리들의 삶을 슬기롭고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18)]

---

12) (주) 교학사, 『고등학교한문』, 단원을 들어가며, 2001, p.38.
13) (주) 금성출판사, 『고등학교한문』, 대단원 열기, 2001, p.68.
14) 대학서림, 『고등학교한문』, 속담, 격언, 2001, pp.32~37.
15) 대한교과서(주), 『고등학교한문』, 단원의 길잡이, 2001, p.33.
16) (주) 두산출판사, 『고등학교한문』, 속담과 격언, 2001, p.24.
17) 정진출판사, 『고등학교한문』,생활 속의 말, 2001, p.23.
18) (주) 중앙교육연구소, 『고등학교한문』, 단원의 길잡이, 2001, p.21.

8) 지학: 한문으로 기록된 속담과 동양의 격언을 배우게 된다. 단문으로 된 문장을 통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며, 속담과 격언속에 담긴 풍자와 교훈을 통해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배우자.[19]

9) 천재: 속담과 격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의미를 이해해 보자.[20]

10) 청색: 조상들의 해학이 함축적으로 담겨진 속담을 통해서 선인들의 생각과 지혜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응용해 보자. 격언을 통하여 선인들의 생활체험에서 나온 삶의 지혜를 본받아 보다 현명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21]

이상과 같이 각 한문 교과서의 속담과 격언에 관한 학습목표를 정리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본받아 생활 속에 적용하여 보자는 학습목표이다.(청색, 두산, 대학, 금성, 대한, 교학, 중앙, 지학)

둘째는 문장을 학습하여 단문으로 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자는 학습목표이다.(천재, 중앙, 지학, 대한, 두산)

이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이 한문교육에 있어서 속담과 격언의 교육목표를 생각해 보았다.

1)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쓸 수 있다.

2) 속담에 담겨진 속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격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훈적인 것을 받아 들여 활용할 수

---

19) (주) 지학사, 『고등학교한문』, 단원의 길잡이, 2001, p.42.
20) (주) 천재교육, 『고등학교한문』, 단원 길잡이,2001, p.25.
21) (주) 청색출판사, 『고등학교한문』, 단원의 길라잡이, 2001, p.44.

있으며, 原典을 이해하여 한문을 독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기른다.

(2) 학습방법

한문학습의 전통적 학습방법을 '서당식' 교육이라고 부른다. 즉 한문을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 한문 학습방법은 근대식 학교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사가 칠판에 쓰면, 학생은 따라 읽고, 쓰며, 외우는 과정이 계속 되었다. 6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7차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추어 교실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상용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방법도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즉 IT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열린 교육을 지향하면서, 한자, 한문교육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한자, 한자어, 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학습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자 한자어는 부수중심지도법, 구조분석법, 조어분석법, 언어생활 활용법, 반복학습법, 비교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둘째, 고사성어, 격언, 속담, 명언, 명구는 토의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컴퓨터를 이용한 동영상활용 학습법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속뜻을 알게 하고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중 격언과 속담을 위한 효과적 학습방법으로는 토의 학습법과 역할놀이 학습법이 주목된다.

* 토의 학습법 : 각 단원에서 익힌 격언 속담, 명언 명구 등에 대해 학

생과 교사, 또는 학생들 간의 토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예) 모듬을 나누어 이야기 모듬별로 고사 성어나 속담 명언, 명구를 응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용함

* 역할놀이 학습법 : 각 단원에 제시된 고사 성어, 격언 속담, 명언, 명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 각자가 역할 놀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예) 고사 성어, 격언 속담, 명언, 명구에 맞는 상황을 대본으로 만들어 모듬별로 발표하여 고사 성어에 담긴 겉 뜻과 속뜻을 정확히 이해함.

그렇다면 속담과 격언의 학습방법으로 각 교과서는 어떠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활동의 전개과정 내용을 살펴보자.

<표3> 속담과 격언의 학습방법

출판사	학습형태	학습 활동 내용
교학	들어가기	학습목표제시, 한자의 쓰임, 문장의 구조 선인들의 삶의 지혜, 격언의 의미와 교훈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기본학습	한자의 쓰임: 허사에 대한 쓰임 어구풀이: 본문 내용의 어구풀이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 파악 본문이해: 본문내용 중 중요 문장내용 풀이
	보충 학습	한자의 활용: 부수가 같은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자어 활용, 문장의 풀이활용
	심화 학습	격언, 속담 익히기, 속담, 격언 되새기기 이야기 마당
	확인 평가	본문 내용 중 한자어, 허사, 본문내용 평가
금성	학습목표	문장의 형식을 알고 활용하기 속담과 격언의 뜻을 알고 활용하기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이해와 활용	속담의 겉 뜻과 속뜻, 어구풀이 한자의 비교와 활용, 한자의 뜻 변화

	깊이보기	허자의 쓰임, 문장의 형식, 한자의 변화와 발전필순에 따라 쓰기
	정리와 탐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응용 활용
대학	학습목표	속담을 통해 선조들의 삶에 대한 지혜와 격언을 통한 선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과 예지를 배운다.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어구해설	속담의 겉 뜻과 속뜻, 어구풀이, 문장형태
	더 알아보기	본문 내용 외에 속담과 격언을 수록하여 이해와 활용
	한자야 놀자	한자카드를 이용한 학습을 하여 한자의 이해
	어휘력기르기	우리말 문장에 한자어를 혼용 어휘력을 향상 시킨다.
	평가	속담과 격언의 학습한 내용 평가
대한	학습목표	허자의 쓰임 파악, 문장형태와 구조 이해, 속담과 격언의 풀이속담과 격언 속에 담긴 선인들의 가치관 이해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디딤 학습	한자의 쓰임, 내용파악하기, 문장의 구조, 형식
	돋움학습	한자의 활용, 생활 속의 한자어, 한자어로 된 부사어, 열린 교실 열린 생각
	펼침 학습	출전에 대한 유래, 한문 문장배열 순서 연습문제풀이
두산	학습목표	속담과 격언의 의미파악, 문장구조 익히기 문장형태 파악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어구풀이	한자의 쓰임, 내용파악하기
	심화학습	문장의 구조, 형식에 대한 이해
	생활 속의 활용	생활한자 익히기, 활용해보기 격언, 속담 찾아보기
	생각키우기	한역속담 이해하기, 주제별 격언이해
	저기점검	형성평가
정진	학습목표	속담의 형성과정 이해, 격언의 출전 및 확인 학습 속담, 격언의 이해와 활용, 문장의 기본 구조이해
	본문 내용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본문연구	주요어구풀이, 문장의 구조, 문장의 연구

	탐구학습	속담, 격언의 이해
	보충학습	속담, 격언의 비유 사례
	확인학습	형성평가
	한 걸음 더	속담의 사례 적용 및 격언의 유추
중앙	학습주안점 생각열기 본문이해 길잡이	격언의 속뜻 이해하기. 문장구조파악하기 격언과 교훈의 의미 알고 이해하기
	본문내용 어구풀이	본문 내용 이해 활용 뜻과 의미 파악 어구풀이
	탐구활동	한자연구, 한자의 쓰임, 문장의 구조
	더알아보기	문장의 확장구조이해
	읽으며 생각하는 한자여행	우화를 통하여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관련 있는 한자를 써 보기
	살펴익히기	학습내용 평가
지학	학습목표 미리보기	학습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진술을 하여 학습내용 파악하기 속담이나 격언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배우는 목적을 알게 한다.
	본문 내용	본문내용에 대한 이해
	본문 들여다 보기	한자의 쓰임, 속담의 뜻
	깊이보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문장의 기본구조 익히기
	맹선생의 한문세상	한자여행: 한자어의 활용 한자의 활용: 모양이나 뜻이 비슷한 한자 속담, 격언의 활용: 본문내용을 추가하여 속담 격언 익히기 읽고 생각하기: 속담, 격언과 관련된 우화를 통하여 생각해보기
	실력다지기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 피드백하기
천재	길잡이	속담과 격언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교훈성 및 선인의 지혜가 담긴 속담과 격언을 설명 제시한다.

	학습요점	본문 내용을 이해하도록 문장구조나, 중요 허사의 쓰임을 제시해 준다.
	본문내용	본문 내용 이해 및 활용
	이해하기	내용 꿰뚫기 에서는 본문 전체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파악 하도록 한다. 형식 꿰뚫기에서는 문장의 형태나 문장 구조, 허자의 쓰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활용하기	한자성의 비밀: 같은 부수로 만들어진 한자이해 테마별 한자어: 신문, 생활속의 한자어이해 작품 속으로: 문장을 통한 한자어 활용
	확장하기	심문과 명변: 동서양의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발표하기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속담을 이해한다.
	읽고생각하기	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한다.
	학습평가	형성 평가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 이해하기
청색	학습목표 미리보기	학습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진술을 하여 학습내용 파악하기. 속담이나 격언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속담과 격언을 배우는 목적을 알게 한다.
	본문 내용	본문내용에 대한 이해
	도움마당	한자의 쓰임 모양이 비슷한 한자, 어구풀이
	한걸음 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문장의 기본구조 익히기
	생활마당	타 교과의 용어 익히기
	풀이마당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 피드백하기

<표3>의 내용을 교과서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학'의 학습방법은 들어가기(학습목표)→ 본문내용→기본학습(한자의 쓰임, 어구풀이, 문장의 구조, 본문이해)→보충학습(한자, 한자어의 활용, 문장의 풀이활용)→심화학습(속담, 격언되새기기. 이야기마당)→확인과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들어가기는 학습목표, 한자의 쓰임, 문장형태, 문장구조, 속담이나 격언을 배우는 의미를 설명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문 내용은 3단원에서 속담 8개, 4단원에서 격언 7개, 5단원에서 격언 7개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내용이해와 알맞은 분량을 제시하였다. 본문 내용아래 출전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본학습은 한자의 쓰임, 어구풀이, 문장구조, 속담, 격언의 이해 3단계로 나누어 본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자의 쓰임은 허자(之, 而, 於, 勿)의 쓰임을 활용하여 문장에서 허자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 문장 형태나, 풀이가 달라지는 내용을 서술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 之: ~의 三歲之習(세 살 때의 버릇),

勿: ~하지 말라. 勿施於人(남에게 베풀지 말라)

어구풀이는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풀이로 구성하여, 한문 속담과 격언에 대해 배우는 부분이므로 한문의 풀이 보다는 우리말 속담이나 격언과 연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예) 積功之塔: 공들인 탑→ 공든 탑

본문의 이해 부분에서는 속담이나 격언의 활용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 遠族 不如近隣: 우리는 흔히 '먼 곳에 사는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라는 말을 한다. 이웃이 친척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보다는 이웃 공동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속담은 짧은 글 속에 삶의 진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깨우치도록 한다.

보충학습은 한자의 활용부분은 부수가 같은 한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뜻이 여럿인 한자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카드나 구조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예) 부수가 같은 한자: 禾 - 積(쌓일 적): 積雪(적설), 秩(차례 질): 秩序(질서)

예) 모양이 비슷한 한자: 逐(쫓을 축): 驅逐(구축), 遂(이룰 수): 遂行(수행)

예) 뜻이 여럿인 한자: 利 - 이롭다(便利) 날카롭다(銳利)

한자어의 활용은 한자어와 한글을 혼용하여 문장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 메모하는 習慣은, 즉흥적인 생각이나 實踐하고 싶은 이상안 등을 내가 忘却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문장풀이의 활용은 문장형식을 활용하여 단문에서 문장형태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 평서형 문장: '~이~하다'라는 서술적인 뜻을 나타내는 문장

三歲之習至于八十(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이른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

반어형 문장: '어찌~ 하리오' 라는 반어적 물음을 나타내는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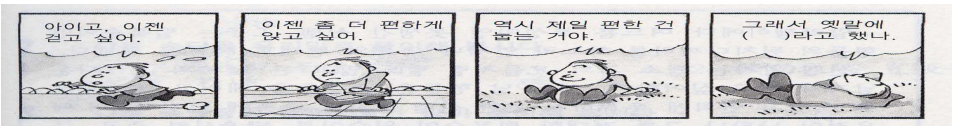
豈毁乎(어찌 무너지리오?)

금지형 문장: '~하지 말라'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言勿異於行(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라)

심화학습은 속담이나 격언 익히기를 4컷 만화로 만들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면서, 활용을 통하여 직접 풀이할 수 있는 문제 형태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만화를 이용하여 학습에 이용하면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 속담:



격언:

속담, 격언 되새기기는 우리말속담이나 격언을 짝지어 연결하는 형태를 통하여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였다.

예)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① 逐彼山兎 竝失家兎

·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마저 잃는다. ② 一日之狗不知畏虎

이야기 마당은 우화나,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속담이나 격언을 적용하여 보도록 하였다.

예) "말라깽이에다 여드름투성이인 못생긴 신델 왕자는 털북숭이인 형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언제나 청소와 빨래로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형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연회장으로 향하고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델 왕자는 슬픔에 잠긴다. 이 때 요정이 나타나 그를 거대한 털북숭이 원숭이로 변신시켜 주고, 그에게 스케이트보드를 선물로 준다. 몸이 변한 신델 왕자는 형들의 연회에 가게 되나 몸집이 너무 커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러블리페니라는 아름다운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 반한다. 하지만 신델 왕자는 자정이 되자 주술이 풀려 다시 전처럼 말라깽이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공주에게 들키게 된다. 놀란 신델 왕자는 입고 있던 낡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도망을 가 버린다. 러블리페니 공주는 바지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방을 전국에 붙이고 그를 찾아 나선다. 마침내 신델 왕자가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되고, 바지의 임자인 신델 왕자는 러블리페니 공주의 구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22]

· 신델 왕자의 처지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이 변화에 어울릴만한 한문 속담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확인과 평가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형성평가 형태로 하여 직접 풀어서 적용해보고, 학습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본문을 학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다음 속담을 우리말로 풀이해 보고 상황 적용하기

---

22) (주) 교학사, 『고등학교한문』, 이야기 마당, 2001, p.44.

騎馬欲率奴 풀이: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

상황적용: 작은 방이라도 내방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철수가 그것을 얻게 되자 좀 더 넓은 방을 바라고, 또 그것을 얻게 되니 침대까지 바라는 게 아닌가, 결국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금성'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이해와 활용→ 깊이보기→ 정리와 탐구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는 '十三. 甘呑苦吐'와 '十四. 同價紅裳'은 속담단원으로 '문장의 형식을 알고 활용하며, 속담의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와 '十五. 金科玉條', '十六. 他山之石'은 격언단원으로 '격언의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속담과 격언의 학습목표는 먼저 교훈성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문장형식은 부수적인 목표로 하였다.

본문내용은 속담단원 '十三. 甘呑苦吐'와 '十四. 同價紅裳'에 18개의 속담으로 구성하였다. '十五. 金科玉條'와 '十六. 他山之石'은 격언으로 된 단원으로 16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격언과 속담내용에 대한 출전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해와 활용은 속담에서는 겉뜻과 속뜻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한자에 대한 풀이를 설명 하였으나, 모든 속담과 격언을 풀이하지 않고, 몇 개만 뽑아 설명하여 나머지는 학습자에게 찾아 학습하도록 유도해 놓았다. 격언에서는 어구풀이를 통하여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하였다 .

예) 속담: 旱時太出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속뜻:(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나타난다는 말. '太'는 콩을 뜻함)

격언: 不入虎穴不得虎子(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한자의 비교와 활용은 학습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수록하여 한글과 혼용하여 활용해 놓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 憎: 憎惡: 사람에게는 누구나 憎惡의 감정이 있다.

贈: 寄贈: 선배님들이 도서관을 지어 寄贈하였다.

한자의 음, 뜻 변화는 한자의 뜻에 따라 음이 다른 것을 설명해 놓았다.

예) 起: 일어나다(起床), 등용하다(起用), 率(솔): 引率, 輕率, 眞率 (율): 比率

뜻이 비슷한 한자와 뜻이 반대인 한자를 수록하여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 뜻이 비슷한 한자: 整理: 흐트러진 것을 질서 있게 함.

矯正: 틀어지거나 굽어진 것을 바로 잡음.

校訂: 잘못된 글자나 글귀를 바로 잡아 고침

뜻이 반대인 한자: 賢(현명하다) → 賢明, 憂(어리석다) → 愚鈍

깊이보기는 한자를 찾아 뜻을 알아보게 하고, 허자로 쓰일 때 뜻과 비교하여보도록 하고, 한자의 쓰임에 따라 문장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예) 허자의 쓰임: '用: ~로써 : 始用升授(처음에 되로써 주다)

문장의 형식: 부정형: 一日之狗不知畏虎

한자의 변화와 발전에서는 한자의 부수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즉 형성자의 경우 음과 뜻 부분의 한자를 한자카드를 이용하여 학습하면 한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예) 奴 → 努 (奴 + 力) 努力

필순에 따라 쓰기는 한자를 처음 익히는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 학습과정에서는 한자의 필순이 주요 학습사항은 아니지만, '금성'은 매 단원 마다 제시하고 있다.

정리와 탐구는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형성평가 형태로 다섯 문항 정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기초과정→ 보통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예) 문장 형식에 관한 문제.

同心之言其臭如蘭의 문장 형태는?

속담이나 격언의 속뜻을 이해하는 문제

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의 속뜻을 말하여보자.

3) '대학'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어구해설→ 더 알아보기→ 한자야 놀자→ 어휘력 기르기→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는 타 교과서와 다르게 학습자가 격언이나 속담을 통해 문장 내용에 대한 정리나 분석, 허자의 쓰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이 서술형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 속담과 격언은 대화중에 삽입되어 언술의 효과를 거두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속담은 다분히 민중들의 입장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 오다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격언과 차이를 갖는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민족적 자각의 차원으로 우리의 고유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구전되는 우리의 속담을 한문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속담을 통해 선조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확인하여 보자.[23]

격언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축약적 언어로 속담보다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다. 격언은 대개 성인이나 위인들의 말이 대부분이며, 출전 또한 분명한 것이 많다. 격언의 내용은 대부분 생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哲理가 함축되어 있다. 아래의 격언을 통하여 우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과 예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24]

본문내용은 6개의 속담과 5개의 격언을 학습내용으로 제시하였는데, 타 교과서 보다 속담과 격언의 학습내용이 빈약한 편이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 '더 알아보기'라는 학습코너를 설정해놓았다.

---

23) (주) 대학서림, 『고등학교한문』, 속담, p.32.
24) (주) 대학서림, 『고등학교한문』, 격언, p.36.

어구해설에서는 본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허자의 쓰임이나, 문장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예) 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없다.

至: 지극히, 너무, 이르다.

則: ~하면(가정), 徒: 무리, 자기를 따르는 무리

또한 '더 알아보기'는 심화학습 부분도 첨부하고 있다.

예) 遠親이 不如近隣이라: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無道人之短無說己之長: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말하지 말라.

'한자야 놀자'는 타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은 학습방법이다. 한자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뒤집기를 통한 한자 만들기는 학습자의 한자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학습형태는 한자학습의 기초단계에서 활용하기 적합하고, 한자의 구조 원리를 익힐 때 적합한 학습방법이다.

예)부수카드

交	者	玄	弗	召

음카드

氵	日	扌	糸	貝

만들한자

'어휘력 기르기'는 한자어와 문장을 통하여 한자를 익히는 과정이다. 신습 한자의 활용처럼 같이 한자어 활용을 통하여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내 秘藏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希望이다.

'평가부분'은 다섯 문항 정도를 선정하여 본문내용에서 학습한 것을 형성평가 하는 형태를 취하고, 문제의 난이도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예)

訓	
	律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쓰시오

'言勿異於行, 行勿異於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言行一致)

4) '대한'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디딤학습→ 돋움학습→ 펼침학습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는 문장의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고, 단문 풀이 및 격언이나 속담의 속뜻을 알고 선인들의 삶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다. 본문내용의 속담 부분은 2자 성어에서 시작하여 4자의 성어로 발전하는 단문으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 神出 → 神出鬼沒 → 積功之塔豈毁乎

穿石 → 水滴穿石 → 一日之狗不知畏虎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 내용이 중심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자 성어나 4자 성어는 속담내용과 별반 관련이 없는 것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습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속담과 연계된 한자어, 한자성어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계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예) 烏飛梨落 → 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 螳螂拒轍 → 一日之狗不知畏虎

'디딤학습'은 타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은 명칭으로, 본문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어구풀이형태이다. 한자의 쓰임, 내용 파악하기, 문장의 구조형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 파악하기'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내용을 直譯하고 속담풀이와 격언을 제시하였다.

예) 一日之狗不知畏虎

하룻강아지 호랑이 두려운 줄 모른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己所不欲勿施於人: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돋움학습'부분도 타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은 명칭으로, 학습자가 한 단계 나아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용으로는 한자의 활용, 생활 속의 한자어, 상대자, '열린 교실 열린 생각'이라는 탐구학습 코너를 두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자의 활용은 부수가 같은 한자를 학습하는 것인데, 象形字에서 유래하여 한자를 활용하였다.

예) 火 → 燃(燃燒), 熟(爛熟), 爐(火爐), 衣→ 裝(裝飾), 裕(裕寬),

'생활 속의 한자어'는 한글 문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어를 활용하였고, 서양의 격언을 활용하여 한자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예)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규범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逸脫行動이라고 한다.

'새로운 속담 익히기'는 본문내용을 보충하여 4字로 된 속담을 제시하였고, 상대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통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牛耳誦經: 쇠귀에 경 읽기.

借廳借閨: 행랑을 빌려 주면 안방까지 빌려 달라 함.

예) 東西 → 東奔西走, 同異→ 同床異夢, 左右→ 左衝右突 經緯→ 經天緯地

'열린 교실', '열린 생각'은 모둠학습의 형태로 학습자가 탐구활동을 통하여 직접 찾아보고 익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예) 다음과 같은 한역된 우리의 속담을 찾아보자

다음주제에 어울리는 격언을 찾아 발표해 보자.(탐구학습)

한역속담: 我田引水, 우리속담: 제 논에 물 대기

우정 : 인격수양:

'펼침 학습'은 정리단계로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유추하여 문제 해

결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관련 속담의 유래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예)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鷄卵有骨)

관련속담 :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유래)'조선 초 청백리로 소문난 황희 정승이 비록 재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끼니를 잘 잇지 못하여 얼굴색이 매우 초췌하였다. 하루는 세종 임금께서 이르시길 내일 남대문을 열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과 재화를 주라. 고 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마침 새벽부터 폭풍우가 몰아쳐 하루 종일 멎지 않아서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두워지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지닌 것은 고작 계란 한 줄이었다. 그것을 황희 정승에게 주었는데, 집에 가서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하였는데, 모두 곯아서 그나마도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 鷄卵有骨의 骨은 곯았다는 말에서 온 音譯이므로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잘못 해석된 것이다. 『송남잡지』[25]

5) '두산'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어구풀이→ 심화학습→ 생활 속의 활용→ 생각 키우기→ 자기점검의 단계로 구성 되었다. 학습목표는 속담과 격언의 학습해야 할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속담과 격언의 기능과 격언의 의미를 알고 문장구조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삼았다. 본문내용은 4字로 된 속담 5개와 문장으로 된 속담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격언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구성에 있어

25) 『송남잡지』는 조선후기 조재삼의 저서로 필사본 14책이 규장각에 남아있다. 내용은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天文, 人事를 비롯한 동·식물 등의 33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서술하였다. 권1은 천문·세시(歲時)·지리·국호(國號)·역년(歷年)·외국, 권2는 농정(農政)·어렵(漁獵)·가옥·의식·재보(財寶)·집물(什物), 권3은 방언(方言), 권4는 계고(稽古)·이기(理氣)·인물·조시(朝市), 권5는 화약(花藥)·초목·음악·기술·구기(拘忌), 권6은 인사·가취(嫁娶)·상제·성명·과거·문방(文房)·무비(武備), 권7은 선불(仙佛)·상이(祥異)·충수(蟲獸)·어조(魚鳥)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권3의 방언은 국어연구의 주요한 자료이다.(『두산백과사전』참조)

서 격언은 단원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속담에 비해 비중이 적게 제시하였다.

'어구풀이'는 본문내용을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상세하게 풀이해 놓아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7차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풀이는 다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 주면 나머지는 학습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예) 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 → 맺은 놈이 풀지.

騎馬欲率奴: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사람 욕심이란 한이 없음.
→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생활 속의 활용'은 보충학습의 단계로 보아야 한다. 생활 한자 익히기에서는 부수자를 활용하여 한자의 뜻과 음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예) 氵⇒ ( )則 → 測(측)헤아리다.: 氣象觀測

亻⇒ ( )則 → 側(측)곁: 側近, 則 →則(칙)법칙: 法則, 規則

타 교과서와 달리 '쉬엄쉬엄' 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직접 인터넷 자료를 찾아 모둠별로 조사・발표하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 단계는 탐구학습이나 모둠별 학습의 형태로서 학습자가 한자와 친해질 수 있으며, 학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컴퓨터를 의존하다 보면, 교과서는 멀리하는 폐단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교수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학습자도 자제력이 필요하다. '생각 키우기'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나 구성상 심화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순 우리말처럼 쓰이는 한자어, 한역속담, 친구 사귐과 관련 서양속담 찾기로 구성해 놓았다.

예) 순 우리말처럼 쓰이는 한자어: 何必(하필): 어찌하여 반드시, 어째서 꼭.

한역속담: 쇠귀에 경 읽기 牛耳讀經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去言美라야 來言美라.

친구 사귐과 관련 서양속담: 비교는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

'자기점검'은 본문학습을 마치고 형성평가 하는 단계로서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학습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였다.

예) 다음 글에서 유래한 4字 성어를 한자로 써보자

二人同心其利斷金 同心之言其臭如蘭: 斷金之交, 金蘭之交

6) '정진'의 학습방법을 분석해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본문연구→ 탐구학습→ 보충학습→ 확인하습→ 한걸음더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는 학습할 내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예) 속담의 형성과정 이해, 격언의 출전 및 확인을 통한 학습

속담과 격언의 이해와 활용하기 문장의 기본 구조 이해.

'본문내용'으로는 속담과 격언이 각각 한 단원씩만 배정되어있다. 따라서 양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겠다. 속담은 4자 속담 6개와 단문 속담 4개를 수록하였고, 격언은 4자의 격언 4개와 문장 격언 5개를 수록하였다. '본문연구'는 주요 어구풀이와 문장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요 어구풀이는 본문내용 중 몇 개만 추출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예) 結者解之 :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良藥苦口 :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격언과 속담을 학습하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속담 학습의 과정은 언어대중의 사고를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예) 격언 他山之石

1단계(출전확인): 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돌로써 가지고 옥을 갈 수 있다.)

다른 산의 돌은 쓸모가 없지만 단단해서 옥을 가는 숫돌로 이용 한다고 함)

2단계(유추과정 검토): 남의 결점은 쓸모가 전혀 없지만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단계(유추): 서로 종류가 다른 두 사물이 부분적으로 같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사물의 나머지 부분도 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일.

탐구학습의 내용은 속담·격언의 이해 단계 → 공감하기(귀납적 사고 훈련: 일반화 또는 유추)단계 → 적용사례 들어가기(연역적 사고 훈련)단계 → 심화학습(적용상의 문제 해결하기)단계로 학습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개과정이다.

'보충학습'은 본문내용 중 용어의 풀이나 설명문장 예시를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단계이다.

예) 사람의 사고 작용을 나타내는 한자어: 聯想, 類似, 整理, 要素, 差異點 등

'확인학습' 단계는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 형성평가의 형태로서 자신의 학습 능력을 확인해 보는 단계이다. 이때 난이도를 조절한 일정한 수준의 문제를 통하여 본문내용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걸음 더'는 토론교실의 형태이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열린 학습' 또는 '창의력 향상'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구성된 단계이다.

예) 다음 대화를 읽고 토론해 보자.

영호: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가 아무리 영희를 따라 다녀 봐야 소용없어. 네 주제를 파악하고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창수: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구나 너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말 들어 본 적 없니? 그것을 안다면 친구가 돼가지고 격려는 못해 줄망정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위의 경우처럼 속담이나 격언에는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대하여 토론해 보자.

7) ‘중앙’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에 들어가기(학습주안점, 생각 열기, 본문이해의 길잡이)→ 본문내용 어구풀이→ 탐구활동→ 더 알아보기→ 읽으며 생각하는 한자여행→ 살펴 익히기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학습에 들어가기’는 학습주안점, 생각 열기, 본문 이해의 길잡이로 구성되었다. ‘학습주안점’은 다른 교과서에서의 ‘학습목표’와 같은 의미이다.

예) 격언의 속뜻 이해하기.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생각 열기’는 속담이나 격언의 실제사용과 교훈성을 생각해보는 단계로서 ‘중앙’의 독특한 형태이다.

예) 춘향전에서 ‘天崩牛出’이라 하였는데, 이 속담이 쓰이는 예를 생각해 보자
德不孤必有隣’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자

‘본문 이해의 길잡이’는 생각 열기에 제시한 속담이나 격언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단계이다. 다른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 ‘중앙’의 특징적 부분이다.

예) ‘공자는『論語』의 ‘里仁’편에서 “德不孤必有隣(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 사람에게 덕이 있다는 것은 마치 香氣와도 같다. 자신뿐만 아니라 周圍까지도 향기롭게 하며, 그 향기는, 은연중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類類相從이란 말처럼 同類를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은 그 인품으로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켜 선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준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다.’[26]

‘본문내용’으로는 4字속담 4개, 단문 속담 6개, 4字격언 4개, 문장 격언 5개를 수록하였다. 모두 출전을 소상히 밝혀 놓았지만, 내용풀이는 간단히 몇 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 仁者無敵: 어진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다.
德生於卑退: 덕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데서 생긴다.

‘탐구활동’의 한자 연구형태에서는 상대한자, 부수가 같은 한자를 설명

26) 최근덕,『고사성어 백과사전』, 샘터사, 1996.

하였으며, 한자의 쓰임에서는 허자의 쓰임을 활용하였고, 문장의 구조를 알아보는 것으로 나누었다.

예) 한자연구: 뜻이 상대되는 한자: 損↔益, 奢↔儉

탐구활동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강의나 설명형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한문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 한문관련 전체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읽으며 생각하는 한자여행'은 예문을 읽고 학습자가 생각을 유추해 내는 과정이다. 이는 앞에서 익힌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 하는 단계이다.

예) 경상도 어느 고을에 구천구백 석을 하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이웃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재산도 넘쳤으나 항상 겸손하여 만석을 채우지 않았다. 죽으면서 자손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만석을 채우지 말라. 자손들은 이 유언을 지켜 항상 구천구백석의 재산만을 지켜 만석을 채우지 않았는데 9대손에 이르러 이 유언을 어기고 만석을 채우고 말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점차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27]

생각유추: 부자가 만석을 채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이유.

부자의 생활 철학과 관계 깊은 격언을 한자로 써보기.

'살펴 익히기'는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하여 문제를 통하여 학습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예)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속뜻을 알아보자.

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우연의 일치로 인한 오해를 받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고, 문장의 형식과 관계있는 허자를 찾아 써보자

積功之塔豈毁乎: 공든 탑이 무너지랴?, 豈～乎 (반어형)

27) 박광민, 『자원 고사성어 삼백선』, 와우, 1996.

8) '지학사'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학습목표(미리보기)→ 본문내용→ 본문 들여다보기→ 깊이보기→ 맹선생의 한문세상→ 실력다지기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부분은 미리보기 부분이라고도 한다. 학습목표는 구체적인 학습주안점을 명시하여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리보기는 학습자가 학습흥미를 일으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본문에서 배워야할 단원의 내용을 미리 암시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예) 한문으로 된 속담을 익혀 활용한다.

격언의 속뜻을 이해하고 선인들의 교훈을 본받는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은 매우 재미있게 표현 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본문내용은 비교적 쉬운 속담으로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본문 들여다보기의 한자의 쓰임, 속담, 격언의 뜻풀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문 들여다보기는 한자의 쓰임은 허자의 쓰임을 활용하여 문장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예) 雖: 비록 ~하더라도(天雖崩 牛出有穴)

속담, 격언의 뜻풀이는 속담이나 격언의 내용을 풀이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예) 烏飛梨落: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一日之狗不知畏虎: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맹선생의 한문세상'은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학습형태로서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내용을 인터넷 주소창으로 열어놓아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내용요소도 학습자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구성요소는 한자어 여행, 한자의 활용 ,속담, 격언의 활용, 읽고 생각하기로 되어 있다.

예) 한자어 여행: 대야바닥에 새긴 교훈- 座右銘

좌우명을 풀이하면 자리의 오른 쪽에 새긴 글이라는 뜻으로, 즉 늘 옆에 갖추어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말한다. 옛날 중국의 탕 임금은 대야바닥에 '日新 又日新' 이라는 글을 새겨 두고 세수를 할 때 마다 그 글을 보며 마음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격언의 활용: 謹於言而 愼於行(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신중히 한다.)

읽고 생각하기: 不言長短-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통한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해 본다.

예) '황희정승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농부가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씌우고 밭가는 것을 보았다. 황희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 두 마리 소가 모두 힘이 세고 크기도 비슷했다. 그래서 농부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낫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밭을 갈 뿐이었다. 황희가 재차 묻자, 그제야 농부가 밭가는 것을 멈추고 길가에 황희의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이쪽 놈이 낫소.' 하고 말했다. 황희가 이상하게 여겨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작은 소리로 말을 하시오?'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과 같은 것이오. 이놈이 낫다고 한다면 저놈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소?' 황희는 그 후로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한다.'[28]

9) '천재'의 학습방법을 분석해 보면 길잡이, 학습요점→ 본문내용→ 이해하기→ 활용하기→ 확장하기→ 발표하기→ 읽고 생각하기→ 학습평가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길잡이', '학습요점'은 동기유발 단계로서 속담과 격언의 함축적 의미와 교훈성, 선인들에게 배워야 할 정신을 설명하여 학습자가 속담과 격언이

28) 『지봉유설』은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이수광이 지은 책으로 20권 10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며, 내용은 천문·지리·병정·관직 따위의 25부문 3,435항목을 고서(古書)에서 뽑아 풀이하였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학습요점은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이다.

예) 속담 속에는 민중의 오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지혜가 반영되어 있고 선인들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 격언은 사리에 맞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될 만한 단문으로 속담과 격언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본문내용'은 학습내용에 대한 분석과 주제 파악, 속담과 격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대단원명이 '마음속에 새기는 명문'으로서 속담내용은 한 단원으로서 '속담과 격언'이라는 단원명으로 한 단원만 설정되어있으며 속담과 격언의 구분이 없이 7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학습 분량이 매우 적다.

'이해하기'는 내용 꿰뚫기와 형식 꿰뚫기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내용 꿰뚫기는 본문 학습 내용에 대한 어구풀이나 격언과 속담의 속뜻을 이해하도록 학습자에게 문장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형식 꿰뚫기는 허자의 쓰임이나 문장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단계로 학습자에게 단문에 대한 이해와 허자를 활용한 문장 형태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

예) 突不燃 不生煙 : 굴뚝은 불 때지 않으면 연기를 내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을 한문으로 표현한 말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滿招損 謙受益: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얻는다.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다. '滿'은 '慢'(교만할 만)과 같은 뜻이다.

'활용하기'는 한자성의 비밀, 테마별 한자어, 작품 속으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자성의 비밀은 같은 부수자로 된 한자의 설명을, 테마별 한자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를 활용하고 있고, 작품 속으로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자어를 익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고 있다.

예) 한자성의 비밀: '突'은 구멍혈(穴)과 개견(犬)을 결합한 글자이다. 穴은 본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파 놓은 굴로 '구멍'이라는 뜻이다. 犬(犭)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인데, 여러 가지 들짐승을 가리키는 글자나 사나운 성격을 표현하는 글자에 사용된다. '突'은 구멍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뛰쳐나온다는 뜻으로 갑자기라는 뜻이 되었고, 굴뚝이라는 뜻도 있다.

(개 견(犬)자가 들어간 한자: 狗, 獸, 犯, 獄, 哭)

테마별 한자어: 淸白吏: 황희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린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작품 속으로: 月下氷人은 配匹을 仲媒해 婚姻하게 해주는 전설상의 사람이다. [29]

'확장하기'는 審問과 明辯으로서 동서양속담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여 학습자에게 속담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예) 問: 선생님 속담이나 격언은 우리나라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담이나 격언이 있지 않을까요?

辯: 그래 좋은 질문이구나. 물론 있겠지. 그렇지만 각 나라의 문화나 민족성의 차이에 따라 그 표현은 많이 다르겠지.

세 살적 버릇 여든 간다.: 三歲之習至于八十: Custom is second nature

'발표하기'는 문학 작품속의 속담표현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속담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 춘향전에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사용한 부분을 찾아 발표해 보자.

'본관이 똥을 싸고 <u>멍석 구멍 생쥐 눈 뜨뜻하고</u>~'

→ 멍석의 작은 구멍 사이로 생쥐가 눈을 뜨듯 불쌍하고 초라한 표정을 했다.

'읽고 생각하기'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사고력을 길러 주는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

예) 인생을 바꾼 한마디: '내가(茶山 정약용)산석(山石 황상의 아버지)에게 文史를 닦도록 권하니 그는 머뭇머뭇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니 "저는 세

29) 홍석표, 『한국문학사강요』, 선학사. 2003.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둔하고 둘째로 막혀 있고, 셋째로 미련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공부하는 자는 큰 병이 세 가지 있는데 너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첫째 외우기를 빨리 하면 그 폐단은 소홀하게 되며, 둘째 글짓기에 빠르면 그 폐단은 부실하게 되고, 이해를 빨리 하면 그 폐단은 거칠게 된다. 무릇 둔하면서 파고드는 자는 그 구멍이 넓어지며, 막혔다가 소통이 되면 그 흐름이 툭 트이며, 미욱한 것을 닦아내면 그 빛이 윤택하게 되는 법이다. 파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함이요,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지런함이요, 닦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지런함이다. 이 부지런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30]

‘학습평가’는 정리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주는 부분이다.

예)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속뜻을 풀이해 보자.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不知道: 구슬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사람은 배워야한다.)

10) ‘청색’의 학습방법을 분석해보면 학습목표→ 본문내용→ 도움마당→ 생활마당 → 풀이마당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학습목표는 속담이나 격언의 본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로서 학습자에게 본문 내용을 익히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전달해 주는 단계이다.

‘본문내용’은 속담과 격언의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학습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여 학습자가 한문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내용구성은 속담을 3개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단원명은 ‘冽上方言’, ‘耳談續纂’, ‘旬五志’라는 출전 자료의 책명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본문에 19개의 속담을 수록하였다. 격언도 단원내용에 따라 3개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단원명은 ‘말’, ‘修身’, ‘함께하는 사회’이고, 15

30) 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것』, 푸른역사, 2007.

개의 격언을 수록하였다.

'도움마당'은 학습 내용을 익히면서 보충설명을 해주는 부분으로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자의 쓰임, 어구풀이, 문장의 활용, 문장의 구조를 익히도록 세분화 되어 있다.

예) 모양이 비슷한 한자: 往(往復), 住(住所), 佳(佳人薄命)

한자의 쓰임: 於～를(을) 敏於事而 愼於言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신중히 하라.

어구풀이: 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 -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문장의 활용: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31]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선한자를 택하여 따르고 그 선하지 않은 자를 고친다.

'생활마당'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교과와 관련지어 활용하였다. 한문학습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많음을 깨우쳐 주고 필요에 따라 한문을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를 보충 설명하면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 비정부 조직(None-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은 정부의 조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직된 非政府的, 非國家的, 非黨派的 行爲者이며, 개인들의 자발적 參與에 의하여 활동하는 非營利 團體로서 환경보호, 인권보호, 난민구호, 開發支援,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공동의 이익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이 10종의 교과서별 학습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전개과정이 '한자야 놀자'(대학), '디딤학습', '돋움학습', '펼침학습'(대한), '한 걸음 더'(정진), '읽으며 생각하는 한자여행'(중앙), '맹선생의 한문세상'(지학) 등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학습자가 어느

31) 『論語』는 孔子(BC.551~479)와 제자들과의 대화, 공자 자신 및 소수 제자들의 어록모음집으로, 공자사상을 실제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문헌이다.

교과서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부분이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방법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았다.

첫째, 학습목표로 제시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둘째, 본문내용은 각 교과서별로 양적인 차이는 있으나, 내용적인 요소는 교훈성과 도덕성의 강조, 실생활에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심화학습에서는 대부분 문장구조, 문장형식, 한자의 쓰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넷째, 보충학습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의 활용, 인터넷을 통한 속담이나 격언 찾기, 문장을 활용한 한자어 이해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정리 및 평가는 7차 교육과정에 맞게 모둠별 토론학습을 통해 생각을 유추하거나, 타 교과서와 관련된 한자이해 하기 등으로 구성하였고, 3~5 개정도의 형성평가문제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俗談 · 格言의 分析

속담과 격언의 분류는 <부록>에서 속담과 격언의 收錄 現況을 출전 빈도수에 따라 분석하여 四字로 된 속담과 短文으로된 속담, 격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속담의 분석은 우리말 속담과 漢譯속담을 수록하여 속뜻(의미)에 따른 주제별 분석을 한다. 분석방법은 각 교과서의 속담을 四字成語의 속담과 短文속담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아울러 각 속담의 출전 자료가 파악 된 것은 출전 자료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격언의 분석은 주제별로 격언의 원문을 수록하고 직역을 한 다음 다시 그 의미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교『漢文』교과서에 수록된 격언을 중심으로 한 연구된 자료가 없고, 대부분 속담의 범주 안에서 격언의 내용을 일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1. 俗談의 分析

속담의 분석에서는 출판사별 속담 단원에 나와 있는 漢譯속담을 우리말 속담과 함께 속뜻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나누고 출전까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4자로 된 속담을 분석하고 다음에 단문으로 된 속담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속담에 담겨진 속뜻(의미)으로서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1) 四字 俗談

1) 세상이치

· 甘呑苦吐 『耳談續纂』[32]

(속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의미):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한다.

자기에게 이로울 땐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배척한다.[33]

· 去者日疎 『旬五志』[34]

(속담): 떠난 사람은 나날이 멀어진다.

(의미): 오랫동안 안 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잊혀 진다.

· 困獸猶鬪

(속담):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

(의미): 약한 것이라도 궁지에 몰리면 강한 것을 향해 대들고 괴롭힐 수 있다.

· 同價紅裳

(속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세경이면 과붓집 살이.

뺨을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

32) 『耳談續纂』은 본래 중국의 明나라의 왕동궤가 지은 『耳談』이라는 책의 내용에 다산 정약용이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어온 속담을 추가로 증보해서 완성한 책이다. 조선후기의 우리 속담을 집대성해 놓은 『耳談續纂』은 『雅言覺非』와 함께 국문학 및 민속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33) 최근학, 『한국 속담사전』, 문화출판공사, 1995.

34) 『旬五志』는 조선 인조때 학자인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으로 1678년에 저술하였다. 旬五志라 는 책명을 정한 것은 홍만종이 병석에 있을 때, 15일간에 걸쳐 탈고를 했다고 해서 "旬五"혹은 "十五"라 이름 하였다. 한다. 중국의 西遊記에 대한 평론에서부터 송강 鄭澈, 면앙정 宋純 등의 詩歌에 대한 평론과 함께 우리의 역사나 사상에 대한 일화, 俗言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분야를 수록하고 있는데, 부록에 130여 개의 俗談을 함께 싣고 있다.

(의미): 같은 값이면 좀 더 나은 것을 골라 가진다.

· 烏飛梨落『旬五志』,『宋南雜識』

(속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의미):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된다. 배나무에 앉았던 까마귀가 막 날 때 배가 떨어지면 혹 그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것 같이 여길지 모르나, 공교롭게 우연히 두 가지 일이 한때에 생겨 의심을 받는다.

· 我田引水

(속담): 제 논에 물대기.

(의미): 자기에게만 이롭게 생각한다.

· 吾鼻三尺

(속담): 내 코가 석자.

(의미): 자신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남을 도와 줄 여유가 없다.

· 泥田鬪狗

(속담): 진흙탕의 개싸움.

(의미) 자기편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음.

· 草綠同色

(속담): 가재는 게 편이다.

(의미): 끼리끼리 어울린다.

· 旱時太出『東諺解』[35]

(속담):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의미):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나타난다.

---

35)『東諺解』는『公私恒用錄』에 기록되어 있는 한문 속담집으로 편자는 미상이고, 총422수가 전한다.

2) 인과

・結者解之

(속담):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의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宿虎衝鼻

(속담): 자는 호랑이 코침 놓기.

(의미):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입거나 일을 불리하게 만듦.

3) 운수

・鷄卵有骨『宋南雜識』

(속담):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의미):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뜻대로 되지 않음

(유래): '조선 초 청백리로 소문난 황희 정승이 비록 재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끼니를 잘 잇지 못하여 얼굴색이 매우 초췌하였다. 하루는 세종임금께서 이르시길 내일 성문을 열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과 재화를 주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마침 새벽부터 비가 내려 하루 종일 멎지 않아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어두워지려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지닌 것은 고작 계란 한 줄이었다. 그것을 황희 정승에게 주었는데, 집에 가서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하였는데, 모두 곯아서 그나마도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

4) 협동

・孤掌難鳴『宋南雜識』.

(속담): 외손뼉은 울기 어렵다. ⇒외손뼉이 울랴?

(의미): 일을 혼자 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

5) 노력

· 苦盡甘來

(속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36]

(의미):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디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온다.

· 水滴穿石

(속담):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낙숫물이 댓돌 뚫는다.

(의미):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에도 댓돌이 뚫리듯 약한 힘이라도 오랫동안계속해서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

· 泣兒授乳

(속담): 우는 아이 젖 준다.

(의미): 무슨 일이나 아무 말 않고 있으면 남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남에게 요구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 愚公移山[37]

(속담):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의미):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

'愚公移山'은 고사성어를 우리의 속담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原典 :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

---

36) 『속담 풀이사전』, 한국 고전신서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37) 『列子』, <(湯問)篇> 太形王屋二山, 方七百里, 高萬仞, 本在冀州之南, 河陽之北. 北山愚公者, 年且九十, 面山而居. 懲山北之塞, 出入之迂也, 聚室而謀, 曰 "吾與汝畢力平險, 指通豫南, 達于漢陰, 可乎?" 雜然相許. 其妻獻疑 曰 "以君之力, 曾不能損魁父之丘. 如太形王屋何? 且焉置土石?" 雜曰 "投諸渤海之尾, 隱土之北." 遂率子孫荷擔者三夫, 叩石墾壤, 箕畚運於渤海之尾. 隣人京城氏之孀妻有遺男, 始齔, 跳往助之. 寒暑易節, 始一反焉. 河曲智叟笑而止之, 曰 "甚矣汝之不惠! 以殘年餘力, 曾不能毁山之一毛; 其如土石何?" 北山愚公長息 曰 "汝心之固, 固不可徹, 曾不若孀妻弱子. 雖我之死, 有子存焉. 子又生孫, 孫又生子, 子又有子, 子又有孫 子子孫孫, 無窮匱也, 而山不加增, 何苦而不平?" 河曲智叟亡以應. 操蛇之神聞之, 懼其不已也, 告之於帝. 帝感其誠, 命夸蛾氏二子負二山, 一厝朔東, 一厝雍南. 自此, 冀之南, 漢之陰無隴斷焉.

(유래): 중국 朔東과 雍南지역에 있는 太行山과 王屋山은 본래 冀州의 남쪽, 河陽의 북쪽에 있었다. 산 밑에 나이 90이 된 愚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평생을 살아오고서 무엇인가 마을을 위해 남은여생을 보내려 했다. 그때 바로 두 산이 마을을 가로막고 있어 外地와 소통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리라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산을 퍼서 渤海에 버리는 일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직하고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우공은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이을 것이요.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이을 것이니, 그러면 언젠가는 산을 모두 없애 길을 열 것이요.' 라며 굴하지 않고 의지(意志)를 불태웠다. 이 때 두 산의 산신령이 하늘의 천제(天帝)에게 아뢰자. 천제는 우공의 꾸준한 노력과 굽히지 않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두 산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우직한 우공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6) 욕심

・矯角殺牛 = 小貪大失

(속담): 쇠 뿔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쥐 잡으려다 장독 깬다.

(의미): 조그만 일을 고치려다 큰일을 낭패 본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방법이 지나쳐 일을 그르침.

・借廳借閨

(속담): 대청 빌리면 안방까지 넘본다.

(의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7) 환경

・近墨者黑 = 近朱者赤

(속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의미): 좋지 못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쁜 것에 물들게 된다.

8) 위선

・同床異夢 = 口蜜腹劍, 羊頭狗肉, 表裏不同, 二律背反.

(속담):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의미):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함

9) 처세

・凍足放尿『旬五志』. = 臨機應變, 下石上臺, 姑息之計, 彌縫策.

(속담):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의미): 한때의 도움이 될 뿐 곧 효력이 없어져 더 나쁘게 됨.

10) 우둔

・燈下不明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

(의미): 가까이서 생긴 일을 도리어 먼데서 생긴 일보다 잘 모른다.

・牛耳讀經 = 牛耳誦經

(속담): 쇠귀에 경 읽기.

(의미):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함.

・井底之蛙 = 坐井觀天

(속담): 우물 안 개구리.

(의미): 식견이 매우 좁음.

11) 언어

・於異阿異『冽上方言』[38]

(속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의미): 어감의 차이로 상대편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다.

---

38)『冽上方言』은 조선 후기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이덕무의 시문집인 靑莊館書에 수록된 方言書이다. 조선조후기의 英正朝 중흥기에 꽃핀 문화운동의 결과물로 이덕무의 철저한 고증과 박식한 학풍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일원의 方言들을 모으고 실생활에 활용되던 속담을 수록했는데, 실학의 연구로 인한 우리 주체적 의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태도가 달라진다.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과 한자성어 '於異阿異'를 분석해 보면 於(어조사 어), 異(다르다 이), 阿(아첨할 아), 異(다르다 이)로 한자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於'와 '阿'는 音만 빌려 쓴 假借로 아무런 뜻이 없다.

(2) 短文俗談

1) 언어

・去言美라야 來言美라.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의미): 내가 남에게 잘하여야 남도 나에게 잘한다.

・晝語雀聽하고 夜語鼠聽이라.『旬五志』

(속담):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의미):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도 말을 조심하라.

2) 변덕

・高麗公事三日[39]『旬五志』= 朝令暮改, 朝變夕改.

(속담): 고려공사삼일.

(의미): 政策이나 法令은 사흘 만에 바뀐다는 뜻으로, 한 번 시작한 일이 오래 계속되어 가지 못함.

39) 丁亥/傳旨平安道都節制使: "烟臺之設, 登高遠望, 伺察邊境, 吹角放砲, 通諭四隣, 或戰或守, 萬全之利器, 故於閭延、慈城、江界、理山等各官, 曾送火熕敎習官, 審定烟臺可置之處。 然此輩新進之人, 恐所見或誤, 故未卽施行, 卿須親往遍觀, 商度可否, 然後定基造築。 大抵始勤終怠, 人之常情, 尤是東人之深病。 故諺曰: "高麗公事三日。" 此語誠不虛矣。世宗 73卷, 18年(1436丙辰) 閏6月 22日 丁亥.

(유래):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烟臺를 설비하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 멀리 관망하며 변경을 사찰하여, 유사시엔 角을 불고 砲를 놓아 이를 사방 인근에 알리고는, 혹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수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利器인 까닭에, 閭延, 慈城, 江界, 理山 등 각 고을에 일찍이 火烽敎習官을 보내어 연대를 설치할 만한 곳을 審定한 바 있다. 그러나 신진인 이 무리들의 본 것이 혹시 대사를 그르치지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은 친히 가서 두루 관찰하고 그 가부를 商量한 연후에 기지를 정하여 축조하도록 하라.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의 사람의 상정이며, 더욱이 우리 東人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말하기를 高麗公事三日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

3) 교만

・谷無虎엔 先生兎라.『洌上方言』

(속담): 호랑이 없는 골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을 한다.

사자 없는 산에서 토끼가 대장 노릇 한다.

(의미):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잘난체한다.

4) 오해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冠하라.『古樂府』[40], 『古文眞寶』[41], 『文選』[42]

(속담): 오이 밭에서 신을 꿰 차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의미): 남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冠하라.'는 속담은 '교학', '금성', '두산', '정진',

40)『古樂府』는 중국 고대로부터 陳, 隋시대까지의 악부를 기록한 책이다.

41)『古文眞寶』는 중국의 시문선집으로 周나라때부터 宋나라 때에 이르는 古詩, 古文의 주옥같은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前集 10권, 後集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편자는 황견으로 되어 있다.

42) 남조 梁나라때 武帝의 맏아들인 昭明太子가 엮은 시문집이다. 詩賦, 文章, 古詩, 등을 수록함. 문체에 따라 39종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지학’의 『漢文』 교과서에는 격언으로 분류하여 수록되었으며, ‘중앙’, ‘천재’『漢文』 교과서만 속담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속담에서 분류하고 격언에서는 내용을 생략하고자 한다.

5) 운수

・窮人之事는 飜亦破鼻라.『耳談續纂』

(속담):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의미):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모든 일에 마가 낀다.

6) 욕심

・騎馬면 欲率奴라.『旬五志』

(속담): 말 타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의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始用升授하고 還以斗受라.『耳談續纂』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의미):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갑절 더 받는다.

・逐彼山兎라가 竝失家兎라.『耳談續纂』

(속담): 산토끼 쫓으려다 집토끼마저 잃는다.

(의미):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 둘 다 잃는다.

7) 분수

・難上之木은 勿仰하라.『耳談續纂』

(속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다 보지 마라.

(의미): 이룰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라.

・一日之狗가 不知畏虎라.『耳談續纂』= 螳螂拒轍.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의미): 제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덤빈다.

8) 인간관계

・寧測十丈水深이나 難測一丈人心이라.『耳談續纂』

(속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의미):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렵다.

・遠族이 不如近隣이라.= 遠親이 不如近隣이라.『東諺解』,『明心寶鑑』[43]

(속담): 먼 사촌 보다는 이웃이 낫다.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의미): 아무리 가까운 일가라도 멀리 떨어져 살면, 위급한 경우에 도와 줄 수 없으니, 도리어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 사람만 못하다.

9) 우둔

・農夫餓死라도 枕厥種子라.『耳談續纂』

(속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의미):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말한다.

어리석고 답답하게 인색하기만 한 사람을 이른다.

'農夫餓死라도 枕厥種子라'는 속담은 '厥'은 '그 궐' 자로 여기에서는 허사로 보아야 한다. '種子'에서 '子'는 접미사로 쓰였다.

10) 아량

・對笑顔에 唾亦難이라.『洌上方言』

(속담):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웃는 얼굴에 침 뱉기 어렵다.

(의미): 간절히 빌고 애원 하는 사람에게는 책망 할 수 없다.

11) 서두름

・待曉月坐黃昏.『耳談續纂』

(속담): 새벽달 보는데 어찌 초저녁부터 기다리겠는가?

---

43)『明心寶鑑』은 중국 명나라 범입본이 엮은 수신서이다.

(의미): 때도 되기 전에 일을 너무 서두른다.

· 三日之程을 一日往하고十日臥라.『旬五志』

(속담): 사흘 갈 길을 하루에 가고 열흘 눕는다.

싸전에 가서 밥 달라 한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의미): 성미가 매우 급한 사람을 이른다.

12) 인과

· 突不燃이면 不生煙이라.『洌上方言』,『旬五志』= 不燃之突煙不生이라.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의미):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突不燃이면 不生煙이라'는 속담은 '청색' 에서는 '不燃之突에 煙不生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달리하였다. 앞의 문장을 직역하면 '굴뚝이 불타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고, 뒤의 문장에서는 '之'라는 허자를 넣어 '불타지 않는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種瓜得瓜요 種豆得豆라.『명심보감』

(속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의미):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 因果應報

13) 노력

·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後漢書』[44]

(속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의미): 뜻한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을 하여야한다.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에서 '虎子'는 '호랑이 새끼'라 해석한다. 또한 한문의 문장 형태는 부정형이지만, 우리말 속담은 긍정형이다. 한문의 부정형에 맞추어 해석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가 된다.

· 積功之塔이 豈毁乎아? = 積功之塔은 不墮라.『旬五志』,『東言考略』[45]

---

44)『後漢書』는 중국 後漢의 正史. 120권. 남북조시대에 宋나라의 범엽이 저술한 책으로 후한의 13대 196년간의 史實을 기록하였다.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의미):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한 일은 쉽게 없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정성 들여 한일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積功之塔이 豈毁乎아?'는 반어형 문장형태이다. 뒷부분의 '豈~乎'는 '어찌 ~하랴'의 형태로 반어형을 나타낸다. 또한 '지학, 에서는 '積功之塔은 不墮'라고 하여 부정형 문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같은 속담이라도 어느 의미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문장의 형태가 달라진다.

14) 손해

・非汝牛角이면豈毁我墻이리오?『旬五志』

(속담): 너의 소뿔이 아니면 어찌 내 담장을 허물겠는가?

(의미): 너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

15) 습관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旬五志』

(속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개줄까. 낙숫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

(의미):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

16) 주관

・隨友適江南이라.『旬五志』

(속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남이 장에 단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선다.

(의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이끌려 같이 행동함.

17) 협동

・十飯一匙면 還成一飯이라.『耳談續纂』

(속담): 열 숟가락이면 한 그릇의 밥.

---

45)『東言考略』은 조선후기에 朴慶家가 지은 국어의 어원, 고담, 속담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의미):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

18) 이기

·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耳談續纂』

(속담): 제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

(의미): 모든 일이 자기 본위여서 조금도 남을 살필 줄 모른다.

19) 은혜

· 養子息이면 知親力.『洌上方言』

(속담): 자식을 길러 봐야 어버이 공을 안다.

(의미): 자식을 기러 보아야만 비로소 어버이의 은혜를 안다.

20) 세상이치

· 月滿則缺 物盛則衰라.『史記』[46]

(속담): 달도 차면 기운다.

(의미): 세상의 온갖 것은 한번 성하면 다시 쇠한다.

행운과 번영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 陰地轉하여 陽地變이라.『洌上方言』,『靑莊館全書』[47]

(속담): 음지가 양지된다. 달도 차면 기운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의미): 운수가 나쁜 사람도 운수가 좋을 때가 있다.

· 鳥久止면 必帶矢라.『洌上方言』

(속담): 새가 오래도록 머물면 화살을 맞는다.

(의미):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21) 허세

---

46)『史記』는 중국 前漢의 사마천이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세계적 통사이다.

47)『靑莊館全書』는 조선 후기의 이덕무가 편찬한 책이다.

· 捉虎 僅捉尾.『宋南雜識』

(속담): 호랑이 잡는다더니 겨우 꼬리만 잡는다.

(의미): 큰 포부를 가지고 행동한 일이 조그만 성과 밖에 못 얻음.

22) 침착함

· 天雖崩이라도牛出有穴이라.『東諺解』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의미): 아무리 큰 재난을 당하였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방책이 있다.

'天雖崩이라도牛出有穴이라' 하늘이(天)비록(雖)무너지다(崩), 구멍이 있다(有穴)는 부분은 우리말과 상호 잘 연결된다. 그러나 '솟아날'에 해당되는 '牛出'은 '소 우'의 '소'와 '날 출'의 '날'을 합하여 '소날'로 풀이하고 이것을 속담에 맞추어 '솟아날' 이라는 표현으로 전성한 것이다.

23) 자애

· 予所憎兒라도 先抱之懷라.『耳談續纂』

(속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의미): 미운 사람일수록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

미운 사람에게 친절과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 吹之恐飛요 執之恐陷이라.『旬五志』

(속담):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의미): 몹시 소중하고 아끼는 것.

먼저 4자성어로 된 속담을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세상이치'에 관한 것이 10개로 가장 많고, '노력'에 관한 것이 4개, '우둔함'에 관한 것이 3개, '욕심'과 '인과'에 관한 것이 각 2개씩이며, '운수', '협동', '환경', '위선', '처세', '언어'에 관한 것은 각 한 개씩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단문속담[48]을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세상이치', '욕심'에 관한

것이 3개씩이고, ‘언어’, ‘분수’, ‘인간관계’, ‘서두름’, ‘인과’, ‘노력’, ‘자애’에 관한 것이 2개씩이며 그 외는 한 개씩으로 되었다.

단문속담은 표현에 있어서 우리말 속담을 漢譯하는 과정에서 뜻이나 음을 빌려 쓴 형태이다. 이에 假借의 형태를 취한 것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별 내용분석과 함께 출전 자료를 제시하였다. 고등학교『漢文』교과서를 분석하여 본 결과 四字成語의 속담은 출전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주제별 분석에 있어서도 주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필자의 견해에 따라 주제별로 나누었다. 필자는 속담을 교과서에 수록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속담의 사용 빈도수다.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 속담을 우선적으로 수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선정 기준은 설문조사를 활용하면 된다.

둘째, 속담의 내용이다.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속담, 즉 학습자의 기준에 맞는 속담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중학교용은 중학교에 맞게 고등학교용은 고등학교에 맞게 제시하여 내용의 중복됨을 피한다. 중학교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반복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가 지루함과 아울러 불충실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속담 내용의 현대화이다.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속담이라고 하여도 옛날 구습을 추종하는 내용이면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대생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

---

48) ‘단문속담’이라는 용어는 다른 연구 결과물에는 용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 5字이상 12字이하의 짧은 문장으로 된 속담을 ‘단문속담’ 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여 표현하였다.

2. 格言의 分析

격언은 속담에 비교하여 출전 자료가 명확하다. 고등학교 『漢文』 교과서에 수록된 격언은 속담보다 그 양도 많지만 격언에 관한 연구 자료는 빈약하다. 대부분 속담의 범주 안에서 격언의 내용을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고는 격언을 속담과 구분하여 독립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격언을 주제별로 세분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언행

· 附耳之言을 勿聽焉하라 戒洩之談을 勿言焉하라. 『燕巖集』[49]

(직역):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듣지 말라.

새어나갈까 염려 하는 말은 듣지 말라.

(의미): 남이 들을 까 염려하는 말은 듣지 말아라.

· 無道人之短하고無說己之長하라. 『明心寶鑑』, 『文選』

(직역):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의미): 자신의 입장에서 남의 단점은 잘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잘하는 점을 드러내지 말라.

· 言에 勿異於行하고 行에 勿異於言하라. 『芝峯集』[50] = 言行一致.

(직역):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말라.

(의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한다.

· 良藥은苦於口나 而利於病이요 忠言은逆於耳나 而利於行이라. 『孔子家語』[51]

(직역):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

---

49) 『燕巖集』은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문집이다.

50) 『芝峯集』은,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이수광의 시문집이다.

51) 『孔子家語』는 魏나라 王肅이 엮은 책으로, 孔子의 言行 및 弟子들과의 문답·論議를 記錄한 책이다.

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의미): 충고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으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

· 君子之言은 寡而實하고 小人之言은 多而虛하니라.『明心寶鑑』

(직역): 군자의 말은 적지만 (내용이) 충실하고 소인의 말은 많지만 (내용이) 비어있다.

(의미): 군자와 소인의 말의 차이는 헛된 말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 男兒一言은 重千金이라.

(직역): 남자의 한마디 말은 중요하기가 천금의 값어치이다.

(의미): 남자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 謹於言而愼於行.『禮記』[52]

(직역): 말을 조심하고 행동은 신중히 하라.

(의미):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먼저 하라.

· 敏於事而愼於言.『論語』

(직역):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신중히 하라.

(의미):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먼저 하라.

· 水去 不復回요 言出難更水라.『推句』[53]

(직역): 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거두기가 어렵다.

(의미): 말을 신중히 하라.

· 言行相符를 謂之正人이요 言行相悖를 謂之小人이라.『芝峯集』

(직역): 언행이 서로 들어맞는 이를 일러 바른 사람이라 이르고 언행이 서로 맞지 않는 이를 일러 소인이라 한다.

---

52)『禮記』는 중국 유가 5경(五經) 중의 하나.원문은 공자(BC 551~479)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직접 지은 책에는 '경'(經)자를 붙이므로 원래 이름은 〈예경〉이었다.

53)『推句』는 선인들이 애송한 시구를 정선하여 뽑아 놓은 책으로 아동의 한문 입문서.

(의미):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

· 言忠信하며行篤敬이면雖蠻貊之邦이라도行矣니라.[54] 『論語』

(직역): 말이 성실하고 신용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우면 비록 미개한 야만인들의 나라에서 할지라도 뜻이 행해질 것이다.

(의미) 말과 행동은 진실하고 성실하면 행하여 질 수 있다.

2) 근신, 경계

· 勤爲無價之寶요 愼是護身之符라. 『明心寶鑑』

(직역): 근면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고, 신중한 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의미):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며, 신중하게 행동하면 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몸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이다.

· 大姦似忠이요 大詐似信이라. 『十八史略』[55]

(직역): 크게 간사함은 충성한 것 같고, 크게 속임은 믿음성이 있는 것 같다.

(의미): 지나치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경계하라.

· 智者도 千慮一失이요 愚者도 千慮一得이라. 『史記』

(직역): 지혜로운 사람도 여러 번 생각하다보면 실수 할 때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여러 번 생각하면 맞을 때가 있다.

(의미): 훌륭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고, 우둔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 有無故而阿君者어든 君其愼之하라. 『戰國策』[56]

---

54) 『論語』, <衛靈公篇>, 子張이 問行한대 子曰 言忠信하며 行篤敬이면 雖蠻貊之邦이라도 行矣어니와 言不忠信하며 行不篤敬이면 雖州里나 行乎哉아 立則見其參於前也오 在輿則見其倚於衡也니 夫然後行이니라 子張이 書諸紳하니라. 자장이 '행'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말이 충실하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서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충성스럽지도 미덥지도 않으며 행동이 독실하지도 공경스럽지도 않으면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행해지겠는가?" "서 있으면 이러한 것이 앞에 있는 듯이 보고, 수레에 타고 있으면 이러한 것이 멍에 채에 있는 듯이 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행해질 수 있다." 자장이 공자의 이 말을 허리띠에 적었다.

55) 『十八史略』은 중국 증선지가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로 원명은 『古今歷代十八史略』이다.

56) 『戰國策』은 중국 漢나라의 유향이 전국시대 遊說客들의 지략을 모아 엮은 책이다.

(직역): 이유 없이 그대에게 아첨하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를 신중히 대하라.

(의미): 지나치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경계하라.

3) 노력

· 合抱之木도生於毫末하고九層之臺도起於累土라. 『老子』[57]

(직역): 한 아름들이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 되고 구층의 높은 樓臺라도 한줌의 쌓아놓은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의미): 合抱之木, 生於毫末: 아름드리나무도 터럭 같은 싹에서 생겨났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 成功之難은 如登天이요失敗之易는 如燒毛라. 『孔子家語』

(직역): 성공의 어려움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실패의 쉬움은 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의미): 성공하기는 어려우나 실패하기는 쉽다.

· 日月逝矣요 歲不我延이니 嗚呼老矣라 是誰之愆고? 『古文眞寶』

(직역): 세월은 가는 것시구나!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아!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고?

(의미): 세월은 가는 것이니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어 노력하라.

·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 『後漢書』

(직역):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의미): 노력을 하여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래): 後漢 초기의 장군 班超는 선선국 樓蘭에 사신으로 떠났다. 선선국왕은 반초의 일행36명을 上客으로厚待했다. 그런데 어느 날, 厚待는 薄待로 돌변했다. 반초는 궁중에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부하 장수를 시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다. 이윽고 부하 장수는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왔다. 지금 선선국에는 匈奴國의 사신이 와 있습니

57)『老子』는 春秋時代의 사상가 老子가 지은 道家思想의 대표적인 책이다.

다. 게다가 대동한 군사만 해도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흉노는 예부터 漢族이 萬里長城을 쌓아 침입을 막았을 정도로 獰猛한 유목민족이다. 반초는 즉시 일행을 불러 모은 다음 술을 나누며 말했다. "지금 이곳에는 흉노국의사신이 1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 있다고 한다. 신선국왕은 우리를 다 죽이거나 흉노국의 사신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 모두들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외쳤다. "좋다. 그럼 오늘 밤에 흉노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쳐들어가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못잡는다(不入虎穴不得虎子)'는 말도 있지 않은 가! " 그날 밤 반초의 일행은 흉노의 숙소에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 일을 계기로 선선국이 굴복했음은 물론 인근 50여 오랑캐 나라들도 한나라를 上國으로 섬기게 되었다.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는 격언 보다는 속담으로 더 알려진 내용이나 '금성'은 격언으로 분류하여 놓았다.

4) 우정

· 二人同心이면 其利斷金이요同心之言은 其臭如蘭이라『周易』[58]

(직역):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운 것이 쇠를 끊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냄새가 난초와 같다.

(의미):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 일을 함께하면 그 힘이 쇠처럼 단단한 것도 끊을 수 있고 그 의견이 서로 맞는 말은 그 가치가 난초처럼 향기로운 것이라는 뜻.

· 君子之交는 淡若水라.『莊子』[59]

(직역):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다.

(의미): 군자의 사귐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담박하기 때문에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58)『周易』은 고대 중국의 哲學書로 六經의 하나이다.
59)『莊子』는 戰國時代의 思想家인 莊周가 지은 책이다.

5) 순응

· 智者는 成之於順時하고愚者는 敗之於逆理니라.『桂苑筆耕集』[60]

(직역): 지혜로운 자는 때를 따르는 데에서 그것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르는 데에서 그것을 실패한다.

(의미): 지혜로운 사람은 순리에 잘 적응하여 따라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대에 역행하여 실패한다.

· 丈夫生世하여 用則效死요 不用則耕於野도 足矣니라.『海東續小學』[61]

(직역): 사내가 세상에 태어나 쓰이면, 목숨을 바칠 것이요, 쓰이지 아니하고 밭을 갈더라도 만족한다.

(의미): 사나이가 태어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면 목숨을 바쳐서 충을 행하여야 하고 쓰이지 않으면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6) 학문의 자세

·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가無窮하니 豈可是己而非人이리오.『退溪集』[62]

(직역):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큰 병이다. 천하의 옳은 이치가 끝이 없으니 어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겠는가?

(의미):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 玉不琢이면 不成器요 人不學이면不知道라.『禮記』

(직역): 옥은 쪼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의미): 옥은 다듬어야 제 구실을 하듯이 사람도 배워야 그 도리를 알 수 있다.

---

60)『桂苑筆耕集』은 신라말기 최치원의 시문집이다.
61)『海東續小學』은 조선후기 박재형이 엮은 아동교육용 교재이다.
62)『退溪集』은 퇴계 이황의 문집이다.

·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論語』

(직역): 공자 왈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의미): 학문을 익혀 조금씩 알아간다면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다

· 學文千載寶요 貪物一朝塵이라.『推句』

(직역): 글을 배우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루 아침의 티끌 먼지와 같다.

(의미):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의 욕심은 중요하지 않다.

· 家若貧이라도 不可因貧而廢學이요 家若富라도 不可恃富而怠學이라.『明心寶鑑』, <勤學篇>

(직역):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서 배움을 그만두지 말고,.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의미): 물질의 유무로 인하여 학문을 게을리 하거나 그만 두지 말라.

· 謂學不暇者는 雖暇라도 亦不能學矣니라.『淮南子』[63]

(직역): 학문을 하는데 겨를이 없다고 하는 자는 비록 겨를이 있더라도 또한 학문 하지 않는다.

(의미):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다 하여도 공부하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써버린다.

7) 은혜

· 施恩勿求報하고與人勿追悔하라.『明心寶鑑』

(직역):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이미 남에게 주고 후회하지 말라.

(의미):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구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 이미 남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63)『淮南子』는 前漢시대 淮南王 劉安이 편찬한 철학서, 형이상학, 우주론, 국가정치, 행위규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 今人多是被養於父母라. 李珥[64]

(직역):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양육된다.

(의미): 부모에 의하여 길러진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8) 삶의 자세

· 破山中賊은易나 破心中賊은 難이라. 『陽明全書』[65]

(직역): 산속의 적은 깨뜨리기 쉬우나 마음속 적은 깨뜨리기 어렵다.

(의미): 외적인 유혹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 不信乎朋友면 不獲乎上矣니라.[66] 『中庸』[67]

(직역): 벗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의미): 먼저 동료에게 믿음을 얻어야만, 윗사람도 인정해 준다.

· 甚愛면 必大費요 多藏이면 必厚亡이니 知是면 不辱이요 知止면 不殆니라. 『老子』[68]

(직역): 명예를 애착하면 반드시 크나큰 손해가 있을 것이며 아끼는 재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

---

64)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이다. 호조·이조·형조·병조 판서 등을 지냈다. 선조에게 '시무육조'를 바치고, '십만양병설' 등 개혁안을 주장했다. 동인·서인 간의 갈등 해소에 노력 했다. 저서는 『성학집요』, 『격몽요결』, 『기자실기』 등이다.

65) 『陽明全書』는 明나라때 왕수인이 지은 책이다.

66) 凡爲天下國家 有九經하니 凡以行之者난 一也니라 凡事 豫則立하고 不豫則廢하나니 言前定則不跲하고 事前定則不困하고 行前定則不疚하고 道前定則不窮이니라 在下位하야 不獲乎上이면 民不可得而治矣리라 獲乎上이 有道하니 不信乎朋友면 不獲乎上矣리라 信乎朋友有道하니 不順乎親이면 不信乎朋友矣리라 右는 第二十章이라

67) 『中庸』은 孔子의 손자인 子思의 저작이라 알려졌다.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五經의 하나인『禮記』에 있는 中庸篇이 宋나라 때 단행본이 된 것으로, 『大學』, 『論語』, 『孟子』와 함께 四書로 불리고 있으며, 宋學의 중요한 교재가 되었다.

68) 『老子』는 上下2編으로 약 5천자로 구성되고 원래 제목은 『道德經』이다. 道德經44장:(知足) 名與身 孰親 身與貨 孰多 得與亡 孰病 是故 甚愛 必大費 多藏 必厚亡 知足 不辱 知止 不殆可以長久: 몸 밖의 명예와 자기의 생명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절실한가? 몸 밖의 재물과 자기의 생명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과 생명을 잃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그러므로 명예를 애착하면 반드시 크나큰 손해가 있을 것이며 아끼는 재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을 것이니, 이런 사람은 그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

지 않을 것이니, 이런 사람은 그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

(의미): 만족 할 줄 알고 살아라.

· 勞心者治人하고 勞力者治於人.『史記』

(직역):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의미): 정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 先則制人하고 後則爲人所制니라.『史記』

(직역): 먼저 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하면 남에게 제압을 당한다.

(의미): 남을 이기려면 앞서서 남보다 해야 한다.

· 惡心屛退 善心興起.『隋書』[69]

(직역): 악한 마음이 함께 물러가면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

(의미):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착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 盛名은 必有重責이요 大巧는 必有奇窮이라.『明心寶鑑』

(직역): 성대한 명성은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있고, 큰 교묘함에는 반드시 곤궁함이 있다.

(의미): 명성에는 책임이 따르고 지나치게 재주를 부리면 곤란을 겪는다.

· 以責人之心으로 責己 以恕己之心으로 恕人하라.『宋史』[70]

(직역):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하라.

(의미): 사람은 누구나 남의 단점은 잘 보인다. 그래서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쉽게 용서한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서 하듯이 남의 잘못도 용서해야한다.

· 德不孤라 必有隣이라.『論語』

---

69)『隋書』는 수나라의 역사서로 85권이다. 長孫無忌, 魏徵 등이 태종의 명을 받아 636년(태종 10)에 만든 책이다.

70)『宋史』는 宋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本紀 47권, 志 162권, 表 32권, 列傳 255권의 총 49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元의 阿魯圖·托克托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했다.

(직역):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의미):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論語』

(직역):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의미): 내가 하기 싫다고 하여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易地思之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 屈己者는 能處重이요 好勝者는必遇敵이라.『明心寶鑑』

(직역):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처 할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의미):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을 낮추면 나중에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우선 당장의 욕심을 낸다면 나중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9) 세상이치

·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니라.『孫子』

(직역):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여러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의미): 남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알면 싸울 때 마다 위태롭지 않다.

· 士爲知己者死요 女悅己者爲容이라.『史記』

(직역):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는 위해 죽음을 다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해 용모를 꾸민다.

(의미):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月滿則缺하고 物盛則衰라.『周易』[71]

(직역): 달은 차면 기울고 만물은 번성하면 쇠잔해진다.

(의미): 무엇이나 한 번 번성하면 쇠퇴하게 된다.

· 好憎人者는 亦爲人所憎이라.『說苑』

---

71)『周易』은『易經』이라고도 하고, 經· 傳의 두 부분을 포함하며 대략 2만 4,000자이다. 周의 문왕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卦·爻의 2가지 부호를 중첩하여 이루어진 64괘·384효, 卦辭, 爻辭로 구성되어 있는데, 卦象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쳤다. 주나라 사람이 간단하게 8괘로 점을 치는 책이었으므로『周易』이라고 했다.

(직역):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의미): 남을 헐뜯거나 비방을 좋아하면 남도 좋지 않게 여긴다.

· 愛人者는 人恒愛之라. 『孟子』

(직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항상 그를 사랑한다.

(의미): 남에게 잘해줘야 남도 나에게 잘해준다.

· 家貧則思良妻요 國亂則思良相이라. 『史記』

(직역):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의미): 어렵거나 위기가 닥치면 현명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 兩虎共鬪면 其勢不俱生이라. 『孔子家語』

(직역):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우면 그 형세가 함께 살수가 없다.

(의미): 형세가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면 함께 다 멸망한다.

· 倉實則 知禮節이라. 『管子』[72]

(직역): 창고가 실하면 예절을 안다.

(의미): 배가 불러야만 예절을 지킬 수 있다.

· 割鷄에 焉用牛刀리오. 『論語』

(직역): 닭을 베는 데에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의미): 사소한 일에 큰일을 하는 인재는 쓰지 않는다.

10) 겸손

· 滿招損이요 謙受益이라. 『書經』[73]

(직역):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의미):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한다.

---

72) 『管子』는 齊나라 管仲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원본은 86편이나 현재 76편만이 전한다. 제나라의 法家를 위주로 하여 기타 여러 학파의 학술사상 논문을 모아 만든 것이다.

73) 『書經』은 『尙書』라고도 한다. 『書經』의 일부는 후대에 쓰였다고 밝혀졌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書經』은 모두 5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33편을 『今文尙書』라 부르고 나머지 25편을 『古文尙書』라 한다.

· 才俊人은 宜學恭謹하고 聰明人은宜學沈厚니라.『象村集』[74]

(직역):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마땅히 공손함과 삼감을 배워야 하며,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침잠함과 두터움을 배워야 한다.

(의미): 재주가 빼어난 사람은 교만하기 쉬우므로 공손하고 삼가는 것을 배워야 하고, 총명한 사람은 매사에 겉만 훑을 수 있으므로 깊게 침잠하여 두텁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愛親者는 不敢惡於人하고 敬親者는 不敢慢於人이라.『孝經』[75]

(직역):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

(의미):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정성스러움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오만하지 않는다.

· 他山之石이라도 可以攻玉이라.『詩經』[76]

(직역):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느니라.

(의미):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擇其善者而從之하고 其不善者而改之라.『論語』

(직역):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

(의미):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 福生於淸儉하고德生於卑退니라.『韓非子』[77]

---

74)『象村集』은 조선중기 문신 申欽(1566~1628)의 시문집으로 63권 22책으로 구성되었다.

75)『孝經』은 孔子와 曾子가 효도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十三經 중의 하나이다. 저자에 대해서는 공자가 지었다는 설, 증자가 지었다는 설, 증자의 제자들이 輯錄했다는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증자 문인들의 저술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秦의 분서갱유 때 顔芝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漢대에 그의 아들 貞이 펴낸『今文孝經』과 공자의 옛 집을 헐 때 발견된『古文孝經』의 2가지가 있다.

76)『詩經』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다. 시와 노래 중에 노래는 잃어버리고 시만 남았다.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나 확실하지 않다. 처음에는 詩라고만 불리었으며, "시"라는 말의 어원은 여기서 나왔다. 주나라 때 편찬되었다 하여 周詩라고도 하다가 당나라 때 와서 오경의 하나에 포함되면서 시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직역):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낮춤과 물러남에서 생긴다.

(의미): 복은 절약하고 검소 하는 가운데 나오고 덕이라는 것은 양보하며 겸손 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11) 선, 효, 덕행

· 人子之職은惟孝爲大이니養之以禮가斯爲孝矣라. 『學語集』[78]

(직역): 사람의 자식의 직분은 오직 효가 크다, 예로써 봉양 하는 것이 이것이 효라 한다.

(의미): 사란의 자식으로서 효도를 제일 먼저로 삼아야한다.

· 出必告하고 反必面하라. 『小學』[79]

(직역):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뵙는다.

(의미): 출입을 할 때 반드시 부모님께 그 처소나 이유를 알리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積不善之家에 必有餘殃이라. 『周易』

(직역):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음이 있다.

(의미): 남모르게 음덕을 쌓으면 경사가 자손에게 까지 미치고, 나쁜 일을 하면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 富潤屋이요 德潤身이라. 『大學』[80]

(직역):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의미): 돈이 있는 사람은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덕이 있는 사람

---

77) 『韓非子』는 戰國時代 말기 韓나라의 公子로 法治主義를 주창한 한비(韓非:BC 280?~BC 233)와 그 일파의 論著이다.

78) 『學語集』은 朝鮮後期의 초학 敎材. 1868년(高宗 5년) 朴載哲이 學問에 관한 글을 여러 책에서 뽑아 解說하여, 어린이들과 쉽게 읽고 그 뜻을 理解할 수 있도록 한 책.

79) 『小學』은 宋나라때 朱熹가 아동들을 교육하기위해 엮은 책이다.

80) 『大學』은 四書의 하나로, 孔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나타낸 유교의 경전이다. 원래 禮記 가운데 한편이었던 것을 朱熹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四書의 하나로 편찬하였다.

은 빛나 보인다.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까이하고 싶으며,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모인다.

12) 도리

· 賢婦는令夫貴하고 惡婦는 令夫賤이라.『明心寶鑑』

(직역): 어진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귀하게 하고 못된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천하게 한다.

(의미): 현명한 아내와 그렇지 못한 아내의 도리이다.

· 兄弟는 比之木則同根也요 比之雁則同行也라.『學語集』

(직역): 형제는 그것을 나무에 비하면 같은 뿌리요, 그것을 기러기에 비유하면 같은 항렬이다.

(의미):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낳으니 우애를 해야 한다.

13) 인간관계

· 水至淸則 無魚하고 人至察則 無徒라.『孔子家語』

(직역):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무리가 없다.

(의미):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너무 깨끗하고, 주변을 생각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 一年之計는 莫如樹穀이요 十年之計는 莫如樹木이요 終身之計는 莫如樹人이라.『管子』

(직역):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십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 만한 것이 없느니라.

(의미):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 海枯終見底나 人死不知心이라.『明心寶鑑』

(직역): 바닷물은 마르면 끝내 바닥을 보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의미):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렵다.

격언의 주제별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언행'과 삶의 자세에 관한 것이 11개로 가장 많고, '세상이치'에 관한 것이 9개이며, '겸손'에 관한 것이 6개, '학문의 자세'에 관한 것이 5개, '노력', '선・효,・덕행'에 관한 것이 4개, '근신・경계', '우정'에 관한 것이 3개, '순응', '은혜', '도리',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2개씩으로 되어있다. 본고는 고등학교『漢文』교과서 전체를 13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주제별로 내용을 수록 한 것은 '청색'뿐이다. 즉 '말', '修身', '함께하는 사회', '대한'에서 '삶의 지표'라는 단원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타 교과서는 주제별 분류를 하지 않고 저자의 임의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Ⅳ. 俗談 · 格言 敎育의 改善方向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되고, 내용은 실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속담 · 격언은 그 소재로서 매우 적합하며,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속담 및 격언에 관한 지도는 학습자가 한문이라는 교과를 어려워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속담 및 격언 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학습방향의 변화, 둘째, 학습방법의 다양화, 셋째, 다양한 수업자료의 개발, 넷째 내용체계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방향의 변화는 한문을 지도하는데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속담 및 격언의 각 단원별 학습목표를 분석하여 보았듯이 '선인들이 남긴 교훈적인 글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이해해 보자'라든지, '속담에 담긴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풍자를 배워보자' 등으로 속담이나 격언의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 속담과 격언의 속뜻을 안다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담과 격언을 풀이할 때는 단순히 漢字 해석에만 그친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속담과 격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뜻에 따라 직역을 한 후에 속뜻을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속담이나 격언이 갖는 독특한 내용에 맞게 학습목표와 학습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담과 격언의 교육목표 중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본질적인 학습목표를 후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부차적인 학습목표인 속담, 격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문장을 익히게 하고 허자의 용법을 설명하여 쉽게 문법 학습을 익히게 할 수 있다

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앞에서 속담과 격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주제별 분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속담과 격언은 다양한 주제 보다는, 학습목표에 맞추어 주로 교훈적인 면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왔다. 속담이나 격언은 전통적인 것이고, 오래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미래지향적인점만 추구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것이나 오래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21세기를 향해 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습방향을 선정한다. 즉 부정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부정적인 의미 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고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면 보다 더 충실하며 다양한 학습방향으로 나아가 학습할 수 있으며, 한문교육의 방향은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속담 및 격언의 교육은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열린교육 방법으로 모든 교과교육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른 한문교육의 학습방법 다양화는 고사성어, 격언·속담, 명언·명구는 토의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컴퓨터를 통한 멀티미디어 활용방법, 신문을 통한 학습방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속뜻을 알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중의 한 가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수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을 통한 장단점, 어휘의 적절한 활용, 설명의 難易度 등을 파악하면 학습방법 개선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방법을 개발해 낼 수 있다. 또 하나는 原典 자료를 활용한 학습을 하여 학습자가 쉽게 익힐 수 있고, 더욱더 속담과 격언에 대한 이해도와 선인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여 학습자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방법은 학습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다양한 수업자료의 개발은 속담과 격언에 관련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자료제작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속담과 격언은 비교적 내용이 쉬워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과서에만 매여 진행하던 수업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제작을 들 수 있다. 현행 한문 교과서는 각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어 똑같은 편제에 의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기본 내용에 충실하면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료 제작은 한문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수업은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한문교육의 편제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한자, 한문 교육이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학교에서 기초적인 단계를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부 사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교육으로서 한문교육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 교과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교육부 지정 기초 한자 900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며, 전혀 한문교과를 학습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시기에 교과 과정상의 선택으로 인한 기초한자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고등학교과정에서도 1학년 과정에서는 학습하지 않고 2학년 과정이 되어서 학습을 한다. 이런 점에서 한문학습은 연계성이 떨어져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속담과 격언은 내용영역 중 한자 → 한자어 → 한문의 단계에서 한문영역에 속한다. 한문영역에서는 그 수준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문교과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도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문학습에서도 학급별 학년별 수준별 수업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Ⅴ. 結論

본고는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 한문교육의 내용과 학습방법을 고찰하였다. 속담과 격언은 현행 한문과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아 학습자들이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 각 출판사 별 속담과 격언의 단원구성, 학습목표,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와 현 상황을 알아보았다. 각각의 교과서는 각자 개성을 살려 독특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격언·속담에 대한 학습량을 줄인 것은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속담과 격언의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속담을 漢譯하는 과정에서 격언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면은 학습자에게 속담과 격언에 관한 개념의 혼동을 야기 시키고 있다. 속담이나 격언을 수록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학습자가 익히기 어렵고 속담과 격언의 주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의 수록은 학습자에게 오히려 학습의 부담을 주며 한문이라는 교과를 더 멀리 할 수 있다.

한문학습의 중요성에서 속담과 격언은 한문학습의 기초와 단문을 익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과 내용의 수록과정에서 분량의 한계로 인하여 속담 격언의 단원을 한 단원씩 수록한 교과서도 있고, 가장 많은 것은 3개의 단원을 설정해 놓았다. 이것은 교과서의 編者마다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느냐에 다르겠지만 한문의 기초부분에서 한자어와 고사성어 다음으로 속담과 격언의 비중을 높게 다루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전제한 바 있다. 즉 속담이나 격언은 선조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학습자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는 점이다.

속담과 격언의 학습내용을 선정할 때 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록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학습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주제의 불확실성은 학습자의 이해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문학습의 전체에 대한 영향도 크다. 현실에 맞는 주제를 가진 속담이나 격언을 수록하면 더욱더 학습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속담과 격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한문교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현장에서 한문교과의 위치가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화 되어있다. 이것은 한문이라는 교과는 독립교과로서 위상이 매우 불안정하며 유동성이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내용, 학습방법의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문화경쟁 시대이다.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한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대부분이 한자와 한자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 공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繼承, 發展시키는 한편, 한자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傳播해야 한다.

<부록> 俗談과 格言의 收錄現況

7차 한문교과서 수록된 四字 속담[84)]

4字 속담	출전	빈도	출판사
烏飛梨落	순오지	6	청색, 지학, 두산, 중앙, 금성, 정진
同價紅裳		4	지학, 두산, 중앙, 금성
*於異阿異[81)]		4	지학, 두산, 금성, 천재[82)]
*借廳借閨		4	지학, 중앙, 대한, 정진
孤掌難鳴		3	두산, 대한, 금성
結者解之		2	두산, 정진
*凍足放尿	순오지	2	청색, 지학
*宿虎衝鼻		2	교학, 정진
*牛耳誦經 *牛耳讀經[83)]		2	두산, 교학 중앙, 대한
*坐井觀天 井底之蛙		2	대학, 대한
*矯角殺牛		2	대한, 정진
*鷄卵有骨		2	대한, 천재
*燈下不明		1	두산, 천재
*困獸猶鬪		2	대한
*我田引水		1	대한
泣兒授乳	순오지	1	지학
同床異夢		1	지학
*泥田鬪狗		1	대한
神出鬼沒	동언고략	1	대한
水滴穿石	이담속찬	1	대한
甘呑苦吐		1	금성
旱時太出	열상방언	1	금성
*吾鼻三尺		1	교학
*苦盡甘來		1	천재
*草綠同色		1	천재
*愚公移山		1	천재
*近墨者黑		1	천재
主客顚倒	이담속찬	1	정진
小貪大失		1	천재
羊頭狗肉		1	천재
去者日疎		1	청색

81) * 로 표기 한 것은 본문 외에 수록된 속담으로서, 교과서 마다 같은 속담이라도 본문에 수록된

水滴穿石	이담속찬	1	대한
甘呑苦吐		1	금성
旱時太出	열상방언	1	금성
*吾鼻三尺		1	교학
*苦盡甘來		1	천재
*草綠同色		1	천재
*愚公移山		1	천재
*近墨者黑		1	천재
主客顚倒	이담속찬	1	정진
小貪大失		1	천재
羊頭狗肉		1	천재
去者日疎		1	청색

7차 한문교과서 수록된 短文 속담(본문외 포함)

속담	출전	빈도	출판사
一日之狗가 不知畏虎라	이담속찬	8	교학, 금성, 대학, 대한 두산, 중앙, 지학, 청색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85]	동언고략 이담속찬	8	교학, 금성, 대학, 중앙 정진, 지학, 천재, 청색
積功之塔이 豈毁乎아? 積功之塔은 不墮라[86]	동언고략	7	교학, 금성, 대한, 두산 중앙, 지학, 청색
農夫餓死라도 枕厥種子라	이담속찬	7	금성, 대한, 두산, 중앙 정진, 지학, 청색
*突不燃이면 不生煙이라 不燃之突에 煙不生이라	열상방언 청장관서 순오지	6	대학, 대한, 두산, 지학, 천재, 청색
天雖崩이라도牛出有穴이라	동언해	5	금성, 대한, 중앙, 지학, 천재

것과 본문 외에 수록된 것이 있다.

82) 『천재』는 '於異阿異,' '鷄卵有骨' 두 속담을 소단원 「3.성어의 이해 --一字千金」의 단원에 수록 하고 있다.

83) 속담은 같은데 한자 표기만 다르다.

84) 이지은, 앞의 논문, pp15~17.

85) * 같은 속담이나 출전 자료가 다르다.

三歲之習이 至于八十이라	동언해 이담속찬	4	교학, 대학, 천재, 청색
*陰地轉하여 陽地變이라	청장관서 열상방언	4	교학, 금성, 정진, 청색
騎馬면 欲率奴라	순오지	4	교학, 금성, 두산, 지학
窮人之事는 飜亦破鼻라	이담속찬	3	금성, 두산, 지학
隨友適江南이라	순오지	3	대한, 두산, 청색
鳥久止면 必帶矢라	열상방언	3	금성, 청색, 지학
遠族이 不如近隣이라 遠親이 不如近隣이라	동언해 명심보감	3	교학, 중앙, 대학
三日之程을 一日往하고十日臥라	순오지	2	천재, 청색
*瓜田不納履하고李下不整冠하라	고악부 고문진보	2	중앙, 천재
寧測十丈水深이나 難測一丈人心이라	이담속찬	2	금성, 두산
始用升授하고 還以斗受라	이담속찬	2	금성, 지학
谷無虎엔 先生兎라.	열상방언	2	금성, 청색
十飯一匙면 還成一飯이라	이담속찬	2	지학, 청색
矢在弦上이니 不可不發이라	위서	2	대한, 지학
難上之木은 勿仰하라	이담속찬	2	두산, 정진
非汝牛角이면豈毁我墻이리오?	순오지	1	대한
膚不毁면 虎難制	열상방언	1	청색
養子息이면 知親力	열상방언	1	청색
對笑顔에 唾亦難이라	열상방언	1	청색
予所憎兒라도 先抱之懷라	이담속찬	1	청색
高麗公事三日	순오지	1	청색
積善之家는 必有餘慶이라	명심보감	1	대한
種瓜得瓜요 種豆得豆라	명심보감	1	두산
吹之恐飛요 執之恐陷이라	순오지	1	두산
晝語雀聽하고 夜語鼠聽이라	순오지	1	대학
虎死留皮요 人死留名이라		1	청색
水至淸則無魚 人至察則無徒		1	청색
去言美라야 來言美라		1	두산
捉虎 僅捉尾	송남잡지	1	지학
無贈弟物 有贈盜物	이담속찬	1	지학
待曉月坐黃昏	이담속찬	1	지학
水隨方圓之器요 人依善惡之友	명심보감	1	천재
月滿則缺 物盛則衰라	사기	1	천재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	후한서	1	대학

7차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격언

격 언	출 전	빈도	출판사
瓜田에不納履요李下不整冠이라	문선	5	교학, 금성 두산, 정진 지학
附耳之言을 勿聽焉하라戒洩之談을 勿言焉하라	연암집	3	교학, 금성 지학
勤爲無價之寶요 愼是護身之符라	명심보감	3	정진, 교학 금성
合抱之木도生於毫末하고九層之臺도起於累土라	노자	2	대한, 중앙
二人同心이면 其利斷金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이라	주역	2	금성, 두산
智者는 成之於順時하고愚者는 敗之於逆理니라	계원필경	2	교학, 중앙
*無道人之短하고無說己之長하라[87]	명심보감 문선	2	대학, 청색
不能舍己從人은學者之大病이라天下之義理가 無窮하니 豈可是己而非人이리오	퇴계집	2	정진, 천재
玉不琢이면 不成器요 人不學이면不知道라	예기	2	교학, 천재
施恩勿求報하고與人勿追悔하라	명심보감	2	교학, 대학
福生於淸儉하고德生於卑退니라	한비자	2	교학, 중앙
破山中賊은易나 破心中賊은 難이라	양명전서	2	금성, 청색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니라	손자	2	금성, 두산
*言에 勿異於行하고 行에 勿異於言하라	지봉집	2	대학, 지학
滿招損이요 謙受益이라	서경	2	중앙, 천재
成功之難은 如登天이요失敗之易는 如燒毛라	공자가어	1	교학
良藥은 苦於口나 而利於病이요 忠言은 逆於耳나 而利於行이라	공자가어	1	교학
日月逝矣요 歲不我延이니嗚呼老矣라 是誰之愆고?	고문진보	1	대한
人子之職은惟孝爲大이니養之以禮가斯爲孝矣라	학어집	1	대한

86) 積功之塔이 豈毁乎아?(積功之塔은 不墮라), 突不燃이면 不生煙이라(不燃之突에 煙不生이라), 遠族이 不如近隣이라(遠親이 不如近隣이라)는 속담은 내용과 의미는 같고 표현형태만 다르다.

一年之計는 莫如樹穀이요十年之計는 莫如樹木이요 終身之計는 莫如 樹人이라	관자	1	두산
丈夫生世하여 用則效死요 不用則耕於野도 足矣니라	해동속 소학	1	지학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積不善之家에 必有餘殃이라	주역	1	지학
才俊人은 宜學恭謹하고 聰明人은宜學沈厚니라	상촌집	1	천재
愛親者는 不敢惡於人하고 敬親者는 不敢慢於人이라	효경	1	천재
君子之言은寡而實하고小人之言은多而虛하니라	명심보감	1	청색
言行相符를 謂之正人이요 言行相悖를 謂之小人이라	지봉집	1	청색
家若貧이라도 不可因貧而廢學이요 家若富라도不可恃富而怠學이라	명심보감	1	청색
甚愛면 必大費요 多藏이면 必厚亡이니 知是면 不辱이요 知止면 不殆니라	노자	1	청색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	후한서	1	금성
君子之交는 淡若水라	장자	1	금성
出必告하고 反必面하라	소학	1	교학
割鷄에 焉用牛刀리오	논어	1	금성
海枯終見底나 人死不知心이라	명심보감	1	금성
士爲知己者死요 女悅己者爲容이라	사기	1	금성
他山之石이라도 可以攻玉이라	시경	1	금성
賢婦는令夫貴하고 惡婦는 令夫賤이라	명심보감	1	금성
不信乎朋友면 不獲乎上矣니라	중용	1	금성
月滿則缺하고 物盛則衰라	주역	1	금성
好憎人者는 亦爲人所憎이라	설원	1	금성
愛人者는 人恒愛之라	맹자	1	대학
水至淸則無魚하고人至察則無徒라	공자가어	1	대학
學而時習之면不亦說乎아?	논어	1	대학
富潤屋이요 德潤身이라	대학	1	교학
大姦似忠이요 大詐似信이라	십팔사략	1	대한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라	논어	1	대한
今人多是被養於父母라	이이	1	대한
男兒一言은 重千金이라		1	두산
家貧則思良妻요 國亂則思良相이라	사기	1	두산
勞心者治人하고 勞力者治於人	사기	1	정진
先則制人하고 後則爲人所制니라	사기	1	지학
謹於言而愼於行	예기	1	지학
兩虎共鬪면 其勢不俱生이라	공자가어	1	지학

惡心屛退 善心興起	수서	1	지학
智者도 千慮一失이요 愚者도 千慮一得이라	사기	1	천재
敏於事而愼於言	논어	1	청색
水去 不復回요 言出難更水라	추구	1	청색
學文千載寶요 貪物一朝塵이라	추구	1	청색
盛名은 必有重責이요 大巧는 必有奇窮이라	명심보감	1	청색
以責人之心으로 責己以恕己之心으로 恕人하라	송사	1	청색
德不孤라 必有隣이라	논어	1	청색
有無故而阿君者어든 君其愼之하라	전국책	1	청색
屈己者는 能處重이요 好勝者는必遇敵이라	명심보감	1	청색
兄弟는 比之木則同根也요 比之雁則同行也라	학어집	1	청색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하고 其不善者而改之라	논어	1	청색
言忠信하며行篤敬이면雖蠻貊之邦이라도行矣니라	논어	1	청색
倉實則 知禮節이라	관자	1	청색
謂學不暇者는 雖暇라도 亦不能學矣니라	회남자	1	청색

같은 내용을 속담과 격언으로 분류한 예

내용	속담으로 분류(출전)	격언으로 분류(출전)
近墨者黑	천재	정진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대한(명심보감)	지학(주역)
不入虎穴이면 不得虎子라	대학(후한서)	금성(후한서)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冠하라	중앙(고악부) 천재(고문진보)	교학, 금성, 두산, 정진, 지학(문선)

87) *는 격언이 본문 외에 수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주) 교학사,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금성출판사,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금성출판사, 『한문고전』, 2001.

· (주) 대학서림,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대한교과서,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두산출판사,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중앙교육연구소,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정진출판사,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지학사,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천재교육, 『고등학교한문』, 2001.

· (주) 청색출판사, 『고등학교한문』, 2001.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교육부고시1997-15호, 광주광역시교육청, 2001.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2001.

·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16,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박광민, 『자원 고사성어 삼백선』, 와우, 1996.

· 최경숙, 『발달심리학』, 교문사, 2000.

· 최근덕, 『고사성어 백과사전』, 샘터사, 1996.

· 최근학, 『한국 속담사전』, 문화출판 공사, 1995.

·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2.

<논문>

· 김종택,「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 국어생활 4권 2호, 국립 국어연구원, 1994.

· 배원철,「중등학교 한문교과서의 속담 수용양상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근혁,「한문교과서에 실린 산문과 속담의 양상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지은,「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효율적 학습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영훈,「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한문』의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임유정,「속담의 지도방안 고찰」,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용식,「고등학교 한문Ⅰ교과서 검토」,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5821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정 을석 한문: 鄭 乙錫 영문: Jeong Eul Seock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 1동 우미아파트 1차102동603호				
연락처	010 * 9886 * 5250 E-MAIL: eulsjj @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高等學校 漢文 敎科書에 收錄된 俗談 · 格言에 관한 硏究 영문 : A Study on the Proverbs in the High School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extbook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정 을 석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